

그림으로 보는
신약성경

어린이 꿈터 바이블

WONDERFUL STORY



BACH Bible All Children's Hands - Wonderful Story Book.

Copyright© 2012 by **BACH**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 recording, or any other -
except for brief quotation in printed reviews,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of the publisher.

This is Wonderful Story Book to be made for Vietnamese Children.
I appreciate all the people who help to publish the book.



당신께 드립니다 ...

어린이 꿈터 바이블

그림으로 보는 신약성경



1.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11
누가복음 2장, 마태복음 1장
2. 목자들에게 들려온 천사들의 찬양 19
누가복음 2장
3. 동방박사들이 제일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25
마태복음 2장
4. 예수님의 행복한 가족 31
누가복음 2장
5. 어려움을 이기신 예수님 37
마태복음 4장
6.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43
요한복음 2장
7. 성경을 읽으신 예수님 49
누가복음 4장

어린이 꿈터 바비블

그림으로 보는 신약성경



8. 아픈 친구를 예수님이 데리고 온 사람들 55

마가복음 2장

9.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61

마태복음 9장

10.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좀 봐! 67

누가복음 8장

11.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73

마가복음 5장

12. 자기 점심을 나누어 준 소년 79

마태복음 14장

13.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85

마가복음 6장

14.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91

마태복음 17장



어린이 꿈터 바탕화면

그림으로 보는 신약성경



15. 욕심쟁이 부자 97
누가복음 12장
16. 일렁어버린 양을 찾은 착한 목자 103
누가복음 15장
17. 예수님을 만난 어린이들 109
마가복음 10장
18. 눈 먼 사람을 고쳐 주신 예수님 115
누가복음 18장
19. 키 작은 삽개오와 예수님 121
누가복음 19장
20.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127
마가복음 11장
21. 마지막 저녁 식사 133
마태복음 26장

어린이 꿈터 바이블

그림으로 보는 신약성경



22. 예수님이 사랑 141

마태복음 27장

23.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145

요한복음 20장

24.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151

사도행전 1~8장

25. 빌립과 에티오피아 사람 157

사도행전 8장

26.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 163

사도행전 9장

27. 감옥에서 노래한 바울과 싸라 169

사도행전 16장

28. 용감한 도우미 바울 177

사도행전 27장



어린이 꿈터 바탕화면

그림으로 보는 신약성경



29. 오네시모를 위해 편지 181
빌레몬서
30.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187
빌립보서.히브리서
31. 예수님을 멀리멀리 전해요 191
디모데전서.디도서
32. 예수님을 전한 베드로의 편지 195
베드로전.후서
33. 바울의 마지막 편지 197
디모데후서
34. 요한이 쓴 사랑의 편지 199
요한 일.이.삼서
35. 밧모섬에 있던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201
요한계시록
36. 요한이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204
요한계시록



그림으로 보는
신약성경

New Testament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 누가복음 2장 14절 –

새로운 약속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 요한계시록 22장 7절 -

1.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2장, 마태복음 1장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천사의 이야기에 마리아는
너무 놀랐어요.

“요셉아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단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란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집엔 빈방이 없어요.”

베들레헴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서 빈방이 없었어요.

“부탁해요. 방을 구하지 못하면 아내와 뱃속의 아기가 위험해요.

빈방이 없을까요?” 요셉이 물었어요.

마침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 배가 뜯시 아팠어요.

“동물들이 자는 마구간이라도 팬찮다면 빌려드리리다.”

그래서 그날 밤, 마리아와 요셉은 가축들과 같이 잤어요.



A colorful illustration of a woman with brown hair, wearing a green top and a purple cardigan, holding a baby wrapped in a red blanket. They are positioned in front of a yellow background with green hills and a blue sky.

“응애, 응애.”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어요.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였어요.

바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마리아는 아기를 포대기에 감쌌어요.

그리고 말들의 먹이를 넣어두는

구유 안에 눕혔어요.

“이 아기를 ‘예수’ 라고 부릅시다.” 요셉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세상을 구원할 분’ 이란 뜻이에요.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아기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말했어요.



2. 목자들에게 들려온 천사들의 찬양

누가복음 2장



그날 밤에 근처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목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밝은 빛이 목자들 주위를 비추자, 목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어요.

“겁내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베들레헴, 이 마을에
갓난 아기가 새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꼭 보셔야 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랍니다.”



그리고 나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은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선하신 일들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사라졌어요.

“어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를 보러 갑시다.”
목자들이 말했어요. 그들은 서둘러 마을로 갔어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목자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어요.

목자들은 이 아기에 대해 천사들에게서 들은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해주었어요.

목자들은 아기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찬양했어요.



3. 동방박사들이 제일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장

“제 별을 좀 보게.” 한 동쪽 나라의 박사가 말했어요.

“나도 보았어.” 다른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는 저 별을 따라가야 해.
저 별은 우리를 새로운 왕에게로
데려가 줄 거야!”

그들은 이 왕이 매우 특별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새 왕이 지금은 조그만 아기일 뿐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이셨어요.



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갔어요.

그들은 제일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아기 왕에게 드리려고요.

박사들은 오랫동안 가야 했어요.

그 별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 갔어요.



드디어 그 별이 멈추었어요.
그곳은 베들레헴 위였어요.
“여기다.” 박사들이 말했어요.
“새 아기 왕이 이곳에 계셔.”



박사들은 왕께만 드리는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뵈러 갔어요.
예수님께 최고로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박사들은 행복했어요. 별이 아기 예수님께 데려다 주었어요.



4. 예수 님의 행복한 가족

누가복음 2장

“나 좀 도와주겠니?” 요셉이 물었어요.

어느새 자란 소년 예수님은
아빠 요셉을 돋는 것이 기뻤어요.
요셉은 나무로 된 물건을
멋지게 만드는 목수였어요.



요셉은 나무로 물건들을 만들어요.

어린 예수님도 목수예요.

예수님은 요셉 아빠가 나무로
물건들을 만드는 것을 도왔어요.





“예수가 만든 것 좀 보겠소?”

아빠 요셉이 엄마 마리아를 불렀어요.

“네.”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정말 멋져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마을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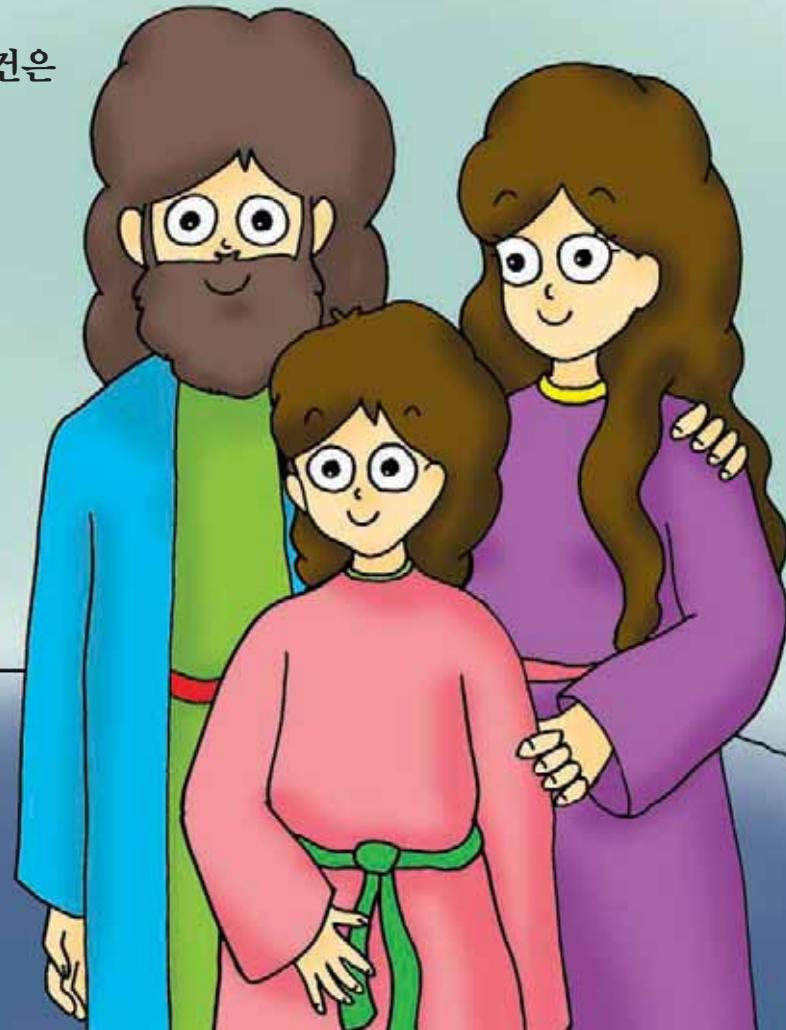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참 행복한 가정이네요.”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네 아빠가 만드는 물건은
튼튼하고 좋아.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멋진 가족이야.”



5. 어려움을 이기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은 어른이 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40일 동안이나 기도하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뭐 먹고 싶지?” 사탄이 물었어요.

예수님은 오랫동안 음식을 드시지 않았어요.

“이 돌들로 음식을 만들 수 있잖아.”

사탄이 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말한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해!”



사탄은 자꾸자꾸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으실 일들을 하라고 졸랐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성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나한테 딱 한번만 절해봐! 그러면 세상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말한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해!”

예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해!”



사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도망갔어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살펴 드렸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사탄이 말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라고 사탄이 꼬신다면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겠죠?



6.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동물들을 팔았어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훔치는 것도 좋아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나가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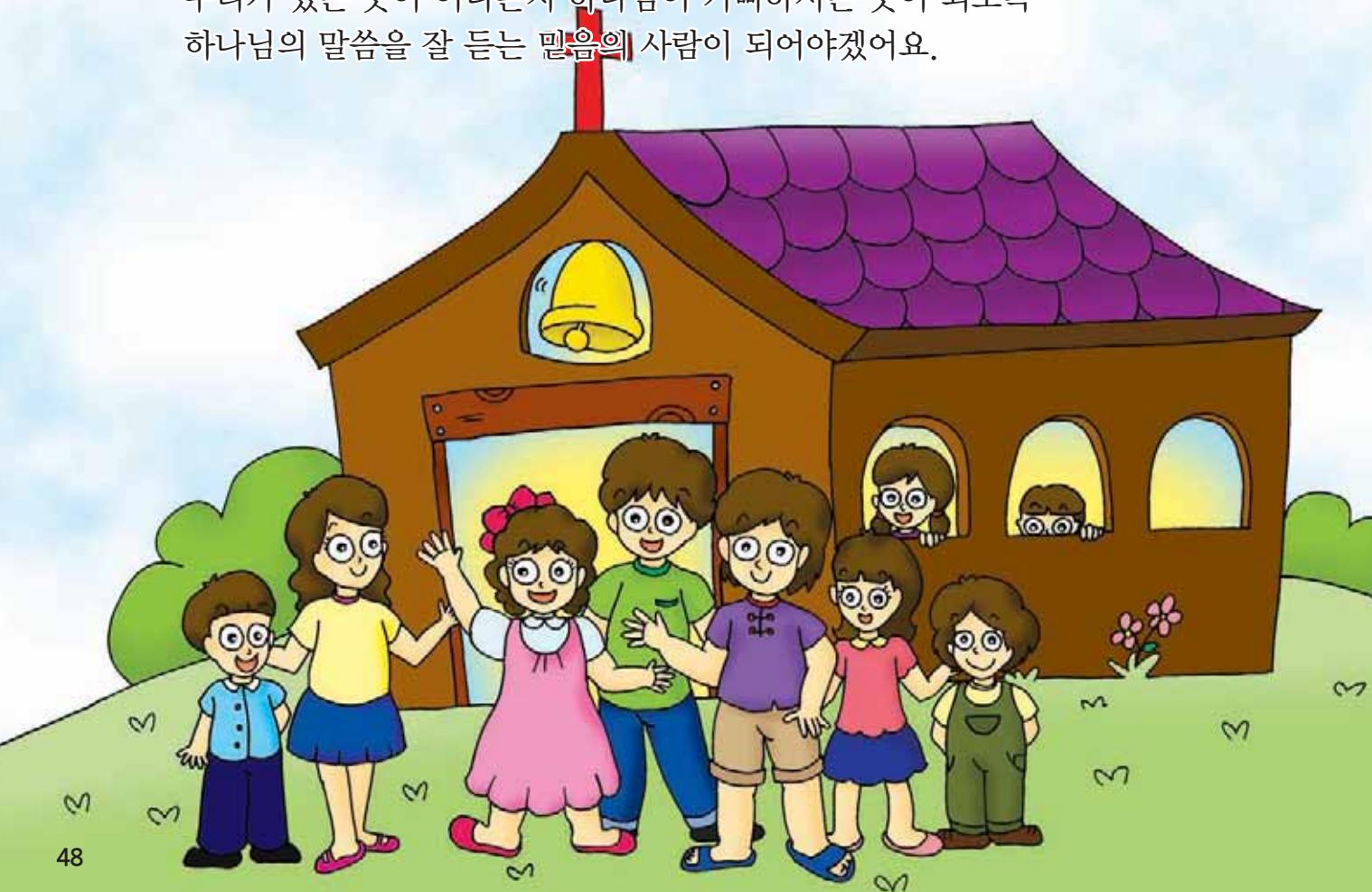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해요!”

하나님의 집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곳에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밀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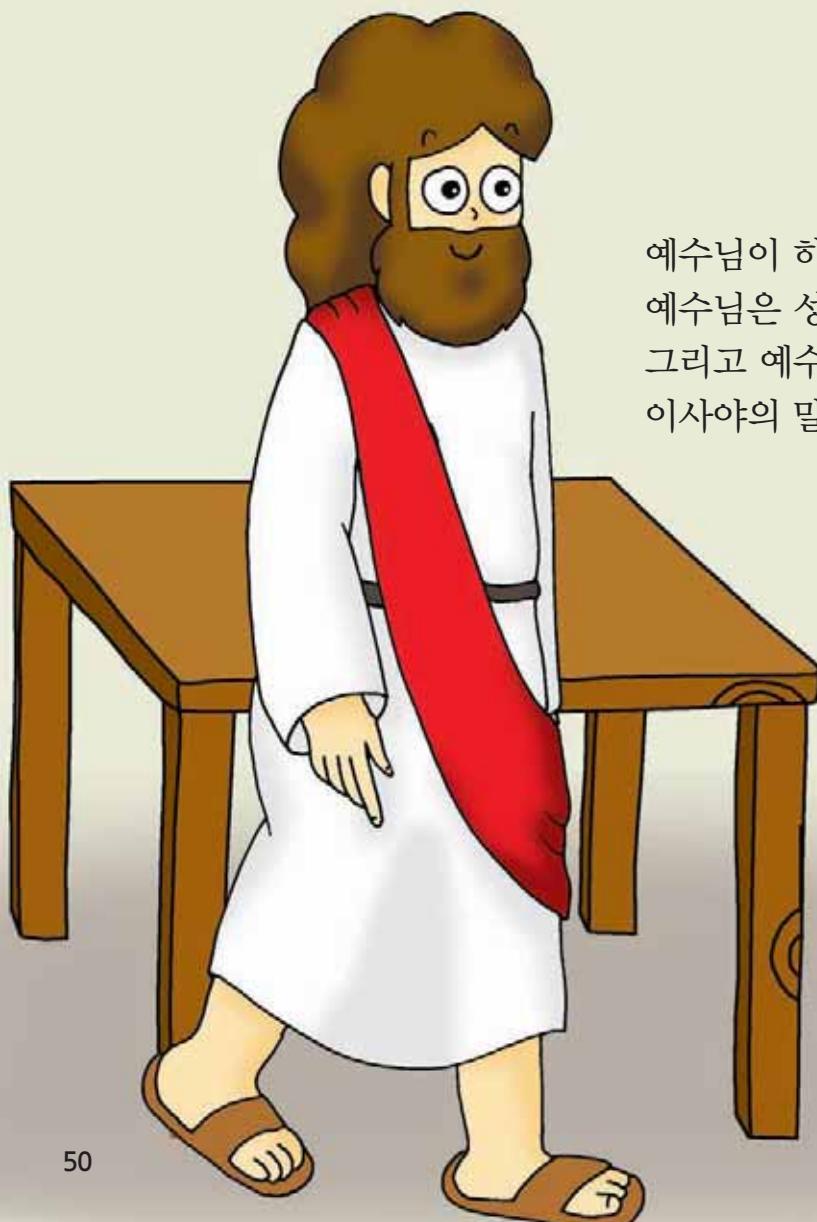


7. 성경을 읽으신 예수님

누가복음 4장



“여기 누가 오는지 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았어요.
예수님이 고향 마을의 성전으로 오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중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읽기 시작하셨어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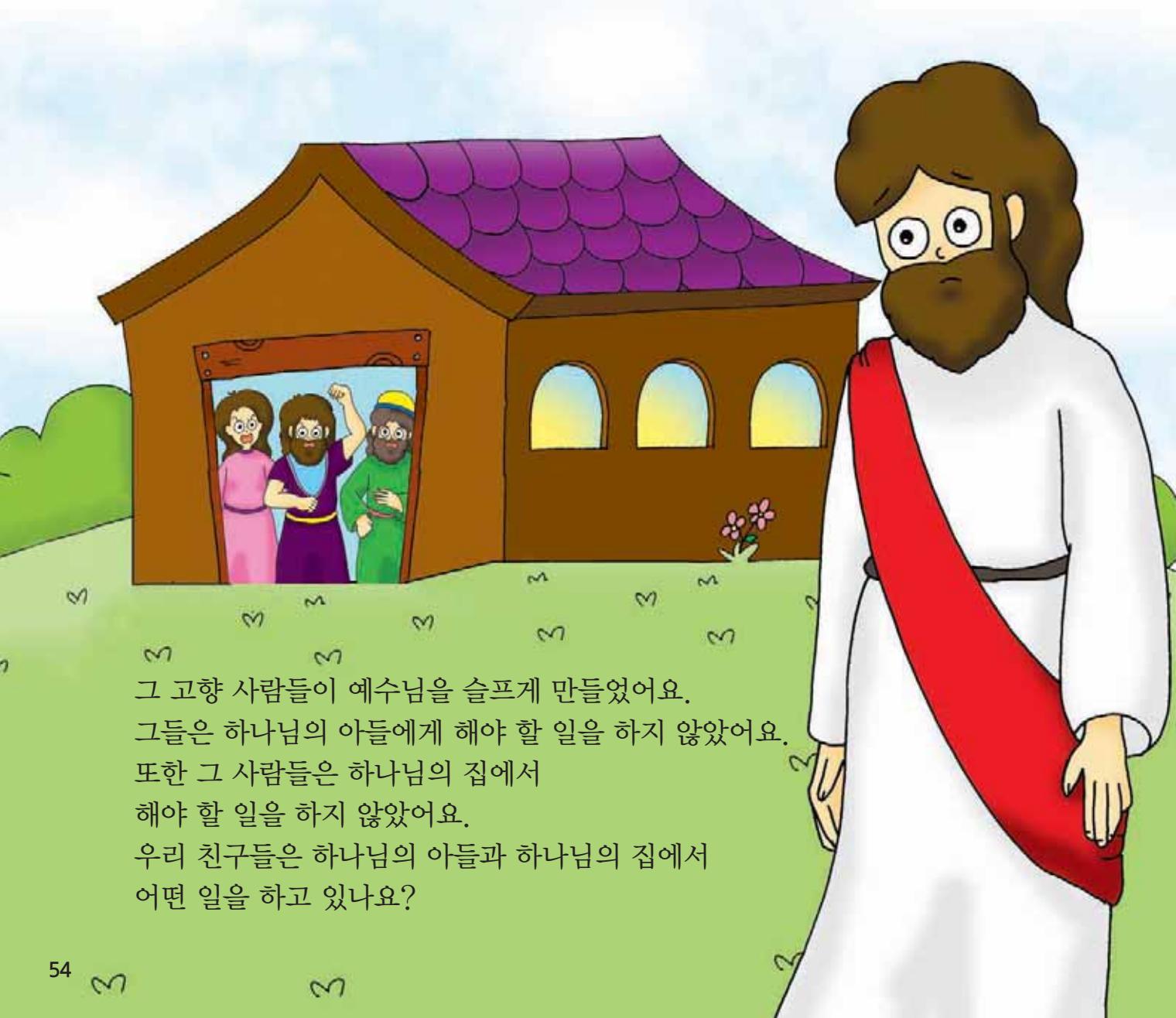
남자 아이들도 여자 아이들도 조용해졌어요.
엄마와 아빠들도 조용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 무엇을 말했는지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요셉의 아들인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성전의 바깥으로 쫓아냈어요.
마을이 세워진 언덕의 벼랑 끝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밑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예수님의 갈 길을 가셨어요.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8. 아픈 친구를 예수님이 데리고 온 사람들

마가복음 2장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 계시답니다. 하지만 당신이 들어갈 수는 없다오.”

다른 사람들이 대답해주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 안이 꽉 찬기 때문이라오.”

“우리 친구가 아파요.” 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이라면 고쳐 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기도 사람, 저기도 사람.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른 길을 찾아보자.” 친구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냈어요.

뚫어낸 구멍으로 아픈 친구가 누워있는 침대를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었어요.

“제발 우리 친구를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친구들은 예수님께 말할 수 있었어요. “친구가 많이 아파요.”

예수님은 그들의 아픈 친구를
돕게 되어 기쁘셨어요.

“일어나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 나았다.”

아픈 친구가 일어났어요.
침대를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걸었어요.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아팠던 친구는 너무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친구는 자신의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외쳤어요. 친구를 데려왔던 사람들도 기뻤어요.

모든 사람이 놀라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9.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9장

마태는 일을 잘 했어요.
또 마태는 자신이 원하는
돈이라면 모두 가졌어요.

마태는 나라에 바치는
돈을 걷는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마태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라에 바치는 돈을 걷을 때
나라에 진짜로 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받아서 남는 돈을 갖는 일을 하거든요.
마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루는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러 오셨어요.
“마태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내게로 와서 나를 위해 일해라.”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마태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곧 마태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또 한가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하면
마태 자신도 행복해 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러자 마태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되었어요.

10.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좀 봐!

누가복음 8장



예수님을 따르던 마태 같은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그들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따라갔어요.
빌립과 바돌로매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도마와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갔답니다.
“나랑 같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이 좋았어요.





곧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자꾸자꾸 더 세차게 불었어요.

배가 물 위에서 아래로 마구 흔들렸어요.

배 안으로 물이 가득 찼어요.

배가 뒤집히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졌어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쿨쿨 주무시고 계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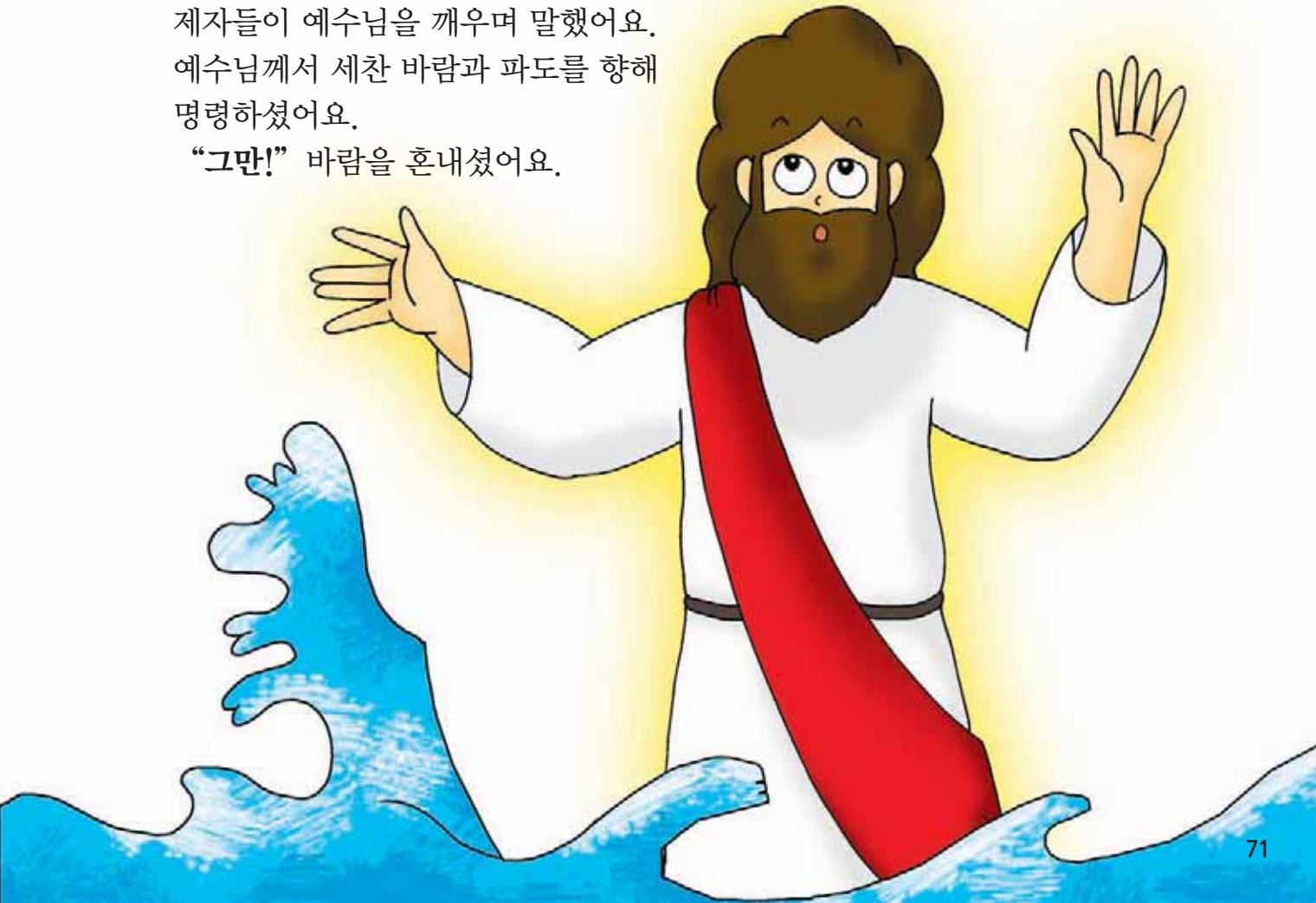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배가 물 속에 빠지려고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찬 바람과 파도를 향해

명령하셨어요.

“그만!” 바람을 혼내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쳤어요. 아래 위로 높게 치던 파도도 멈추었어요.

배도 아래 위로 마구 흔들리던 것을 멈추었어요.

“봤어?” 제자들이 서로 놀라서 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다른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11.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마가복음 5장



“제발 저희 집에 와 주세요.”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세요.

그러면 살아날 거예요.”

거듭거듭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가셨어요.

야이로의 집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에워싸고 밀며 따라왔어요.

그 중에는 12년 동안 아픈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가진 돈을 치료비로 다 썼지만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어요.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병을 고치는 힘이
나간 것을 느끼시고
아주머니와 대화하고 계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했어요.
“늦었어요.
파님이 돌아가셨어요.”
야이로는 너무 슬펐어요.
야이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 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울고 있었고, 슬퍼 보였어요.
야이로는 너무나 슬펐어요.

“내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우리 아이가 살았을 텐데… 딸이 죽었구나.”
야이로가 말했어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이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이 방에서 나가시오.”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열두 살 된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이로와 소녀의 부모님은 놀랍고 기뻤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했어요.



12. 자기 점심을 나누어 준 소년

마태복음 14장



“여기 네 점심 도시락이 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란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배고플 테니까

친구들과 나눠먹어라.”

소년은 신이 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거든요.

소년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함께 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소년과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날도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지만,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플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말씀하셨어요.
남자 어른만 세어도 오천 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밥을 줄까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소년은 예수님도 배가 곱시 고프실 것 같았어요.





소년은 엄마가 주신 도시락을 제자에게 가져갔어요.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드리고 싶어요.**” 소년이 말했어요.

제자는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소년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소년은 작은 도시락을 드린 것이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은 점심 도시락을 드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제자들에게 음식을 떼어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어요.
남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소년과 친구들을
빙그레 웃으시며 바라보셨어요.
“점심 도시락을 주어서 고맙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년은 자기의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이¹
너무나 멋지게 보였어요.
소년도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근처에 앉아,
빵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13.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마가복음 6장



물고기 두 마리와 다섯 개의 빵으로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먼저 가 있으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가는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탔어요.
호수 건너편에 있는 베사다에 가려고 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를 가지고 오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이 친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곧 밤이 되었어요.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호수의 물결이 아래 위로 심하게 파도쳤어요.

“호수를 건너가려면 밤새 가야겠군.” 제자들이 말했어요.

제자들은 열심히 열심히 애 쓰며 노를 저었어요.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파도가 계속 치자 제자들이 힘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두 노젓기를 멈추었어요. “저, 저것 좀 봐!”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물 위로 뭔가 걸어오고 있어!” 서로 이야기 했어요.



“유령이다!”

제자들이 소리 질렀어요.

“나야. 겁내지 마.”

물 위를 걸어오던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님이다!”

제자들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가라앉았어요.

제자들은 더 크게 놀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안심이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까?” 어떤 제자가 물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다른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14.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만 데리고 높이높이 올라가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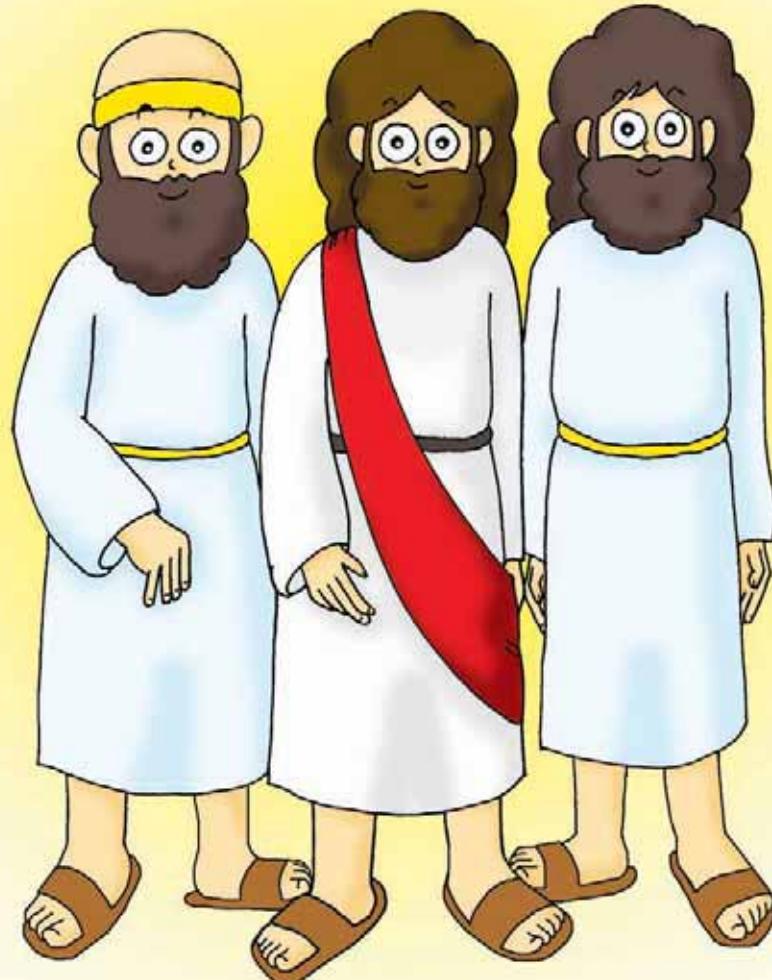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야?”
한 제자가 다른 제자에게 물었어요.
“우린 잘 모르겠는데.”

다른 제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겠지?”
그러자 예수님의 얼굴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옷도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천막이라도 세우고 싶어요.
예수님 것, 모세 것, 엘리야 것 그렇게 세 개를 세워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사람들 위를 덮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구름 속에서 누가 말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웠어요. 예수님 옆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예수님 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¹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5. 육십쟁이 부자

누가복음 12장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큰 농장을
갖고 있었어요.
커다란 창고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는 집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그 부자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 부자는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더 큰 창고들을 지어야지.” 부자가 말했어요.

“창고들을 더 크게 더 크게 만들거야.”

그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부자는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웃에게 나누주지도 않았어요.

“내 것들을 가지고 신나게 놀아보자.” 그 부자가 말했어요.

“난 어떤 것도 거저 나누어 주지 않을 거야. 내 거잖아. 난 모두 필요해.”

“오늘밤 너는 죽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면 다른 사람들이
너의 모든 것들을 가져갈 거야.”



그 부자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날 밤에 부자가 죽었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부자의 물건들을 모두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어야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16. 잃어버린 양을 찾은 착한 목자

누가복음 15장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착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양떼를 떠나 혼자 멀리멀리 가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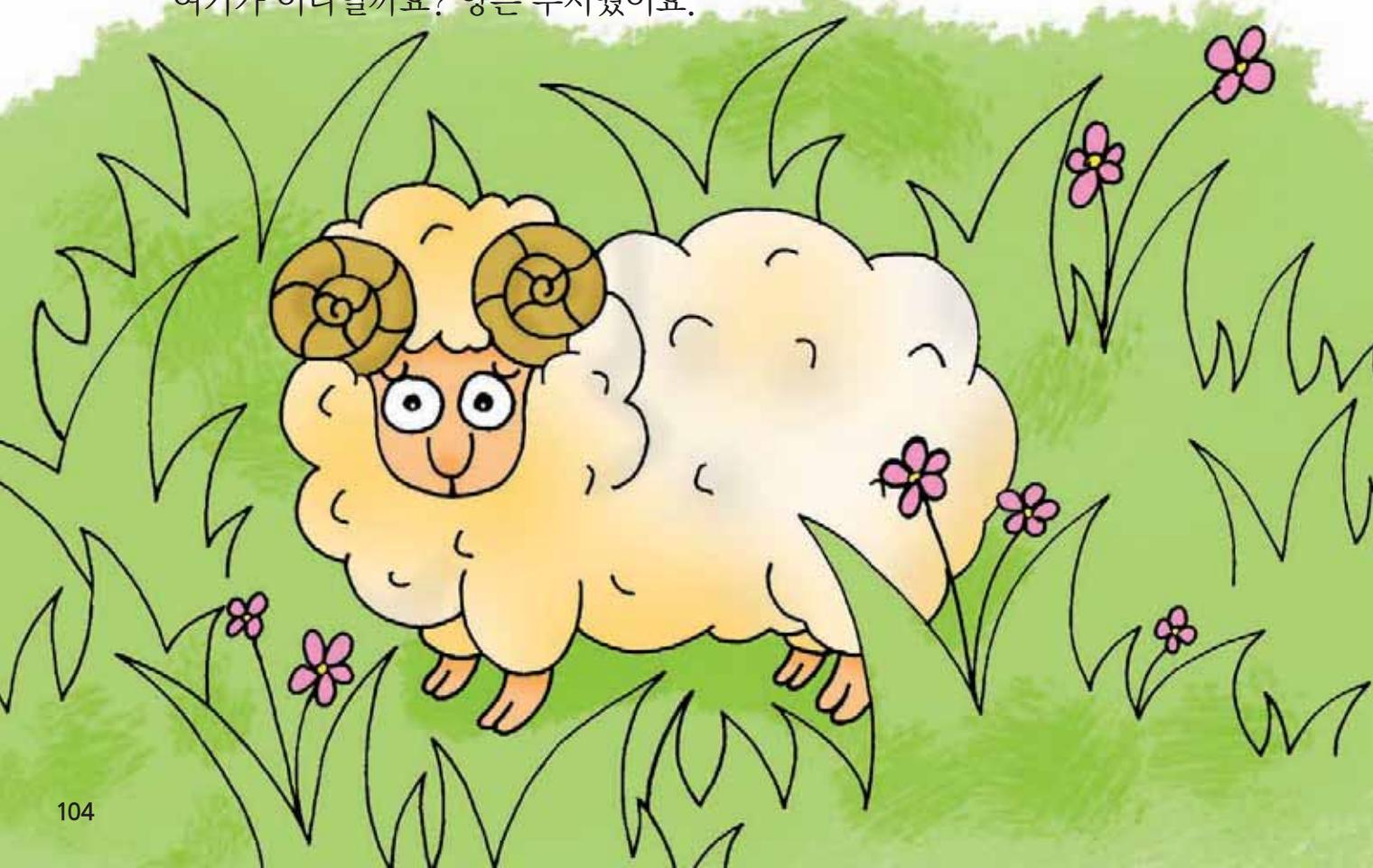


양은 다른 친구들에게서 멀리 떨어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메-엠 메-엠.” 양은 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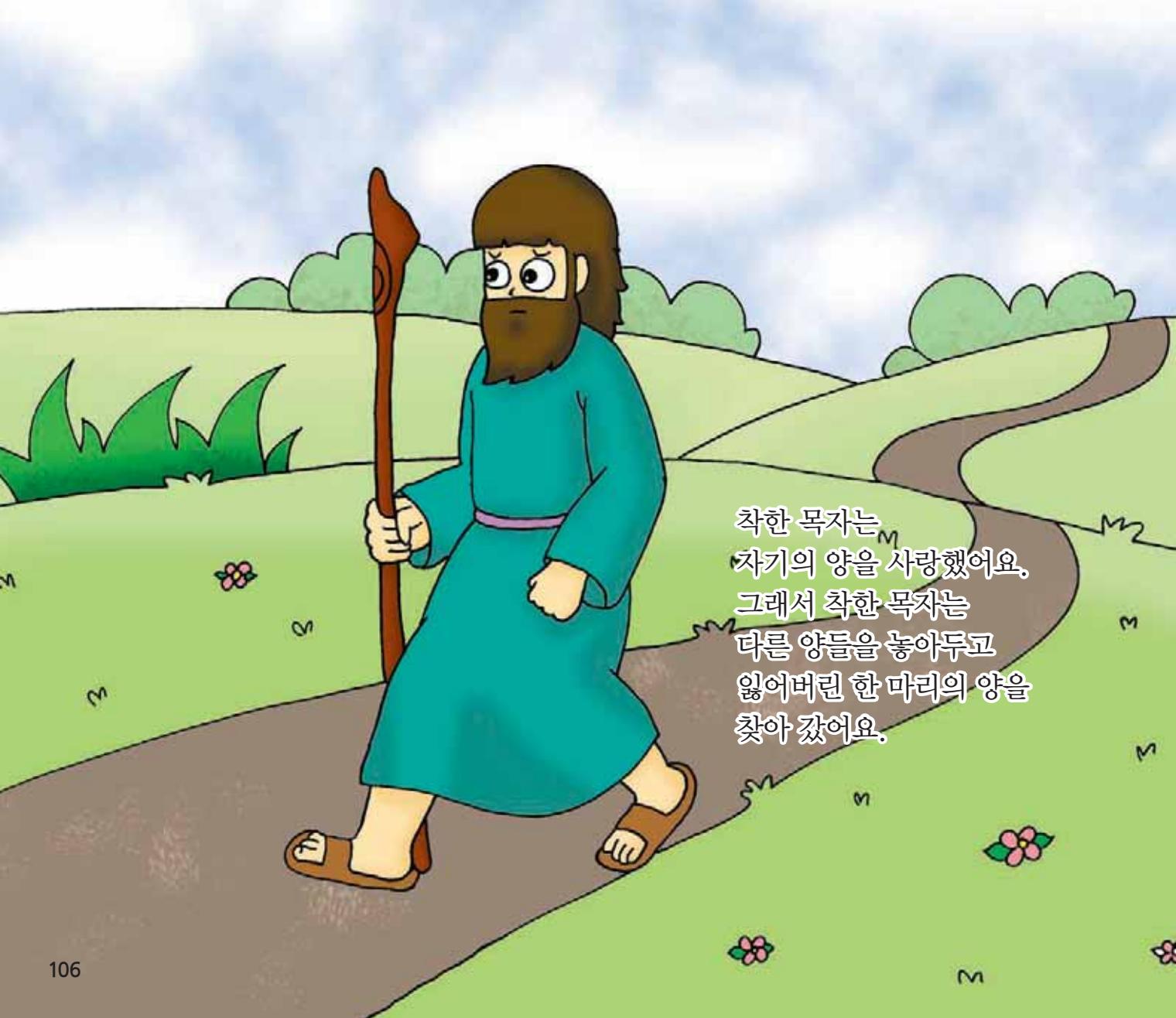
여기가 어디일까요? 양은 무서웠어요.



해질녘이 되면 목자는
양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들판에 있다가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양이 죽게 되거나
다치니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
아흔아홉 마리. 이상하다.
분명히 100마리인데.”
몇 번이고 다시 세어 봐요.
목자는 그의 양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착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착한 목자는
다른 양들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갔어요.

A colorful illustration of Jesus Christ with long brown hair and a beard, wearing a teal robe. He is holding a white lamb with large, curved brown horns. They are standing in a field of green grass and pink flowers. The background is a light blue sky.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고 또 찾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양을 찾았어요.
목자는 팔로 양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양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예수님은 잊어버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랍니다.

17. 예수님을 만난 어린이들

마가복음 10장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엄마와 아빠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안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엄마와 아빠에게 야단쳤어요.

“왜 안 된다는 거죠?” 엄마들과 아빠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엄마와 아빠는 아주 컸어요.

“예수님은 할 일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안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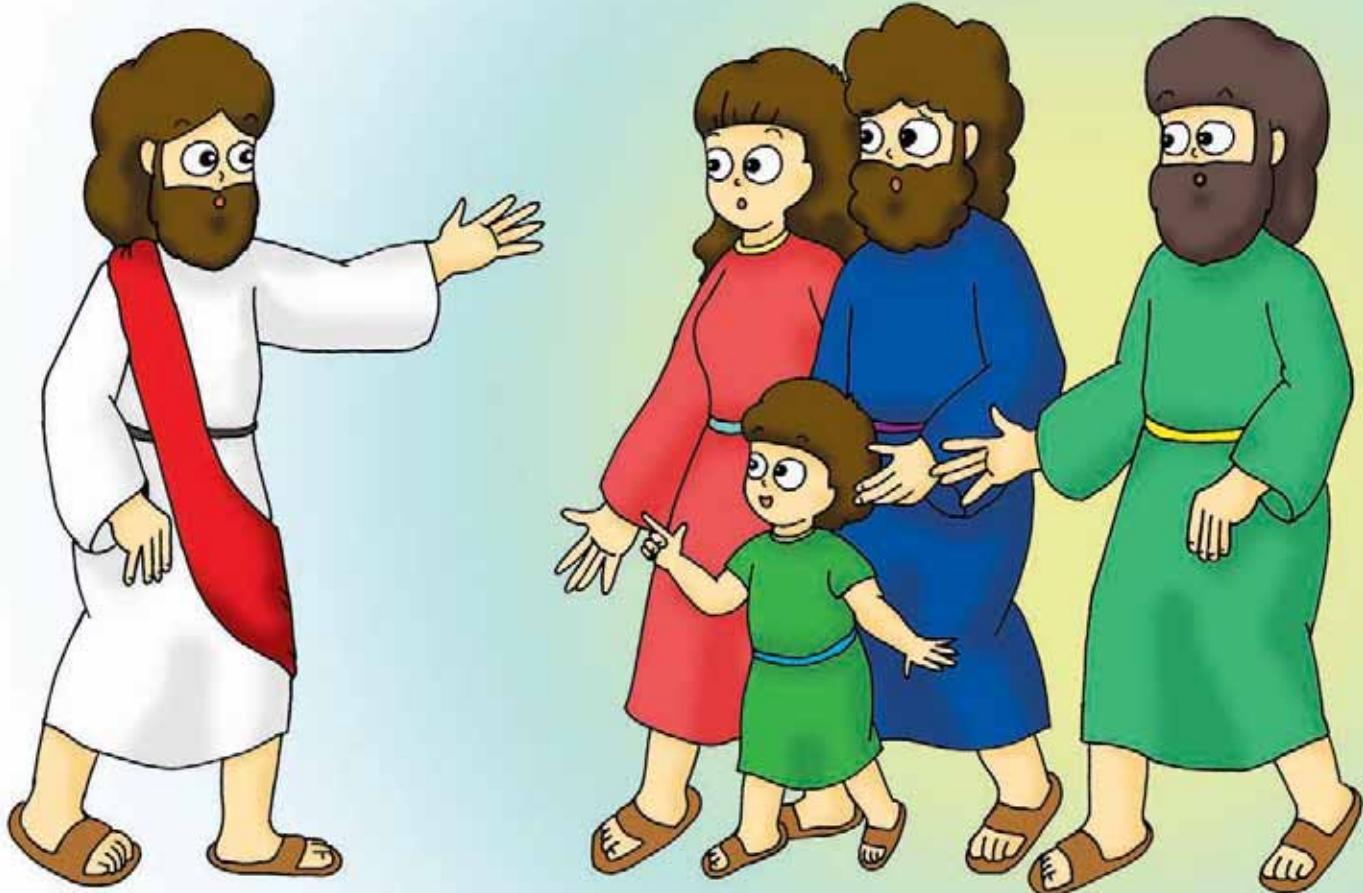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군요.”

엄마들과 아빠들이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할 일이 많으시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가로 막지 말게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도록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많이 많이 이야기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이야기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바쁘셔서
어린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이야기해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나라이다.
누구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아이들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야 한다.”

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어린아이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란다.”



18. 눈 먼 사랑을 고쳐 주신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어요.

한 가난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죠.
먹을 음식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매오에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도 앞을 본 적이 없죠.
그날도 바디매오는 성전 문 앞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죠?”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네.”
바디매오는 그동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디매오는 소리쳤어요.
“나사렛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들으시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앞서 가던 사람들이 야단쳤어요.
“이봐, 좀 조용히 해.
거지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지만 바디매오는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를 데려오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디매오가 예수님께 오도록
도와주었어요.

바디매오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보고 싶어요.”

바디매오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봐야지.

자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낫게 하였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즉시, 바디매오는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보게 된 바디매오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바디매오는 이제 나무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앞을 볼 수 있도록 고쳐주신 예수님도 볼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을 뜨게 된
바디매오가 말했어요.

그리고 바디매오는
예수님과 같이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돕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많이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디매오도
예수님을 많이 많이
사랑했답니다.



19. 키 작은 삭개오와 예수 닝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는 슬펐어요. 삭개오는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어요.

세리장이 삭개오를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삭개오는 거짓말쟁이야.”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삭개오는 남의 돈을 훔치기도 해.”



하루는 삽개오가 친절한 사람을 보았어요.

삽개오는 사람들끼리 친절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삽개오가 말했어요. “저 분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구 놀렸어요.

“예수님은 착한 분이셔. 자네 같은 거짓말쟁이와는 친구가 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을 헤치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마침 삭개오에게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나무 아래로 오셨어요.
그리고 올려다 보셨어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거짓말쟁이라고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놀리기만 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에 집에 와서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삭개오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삭개오는 맛있는 음식을 예수님께 대접했어요.
“제가 거짓말해서 잘못했어요.”—삭개오가 말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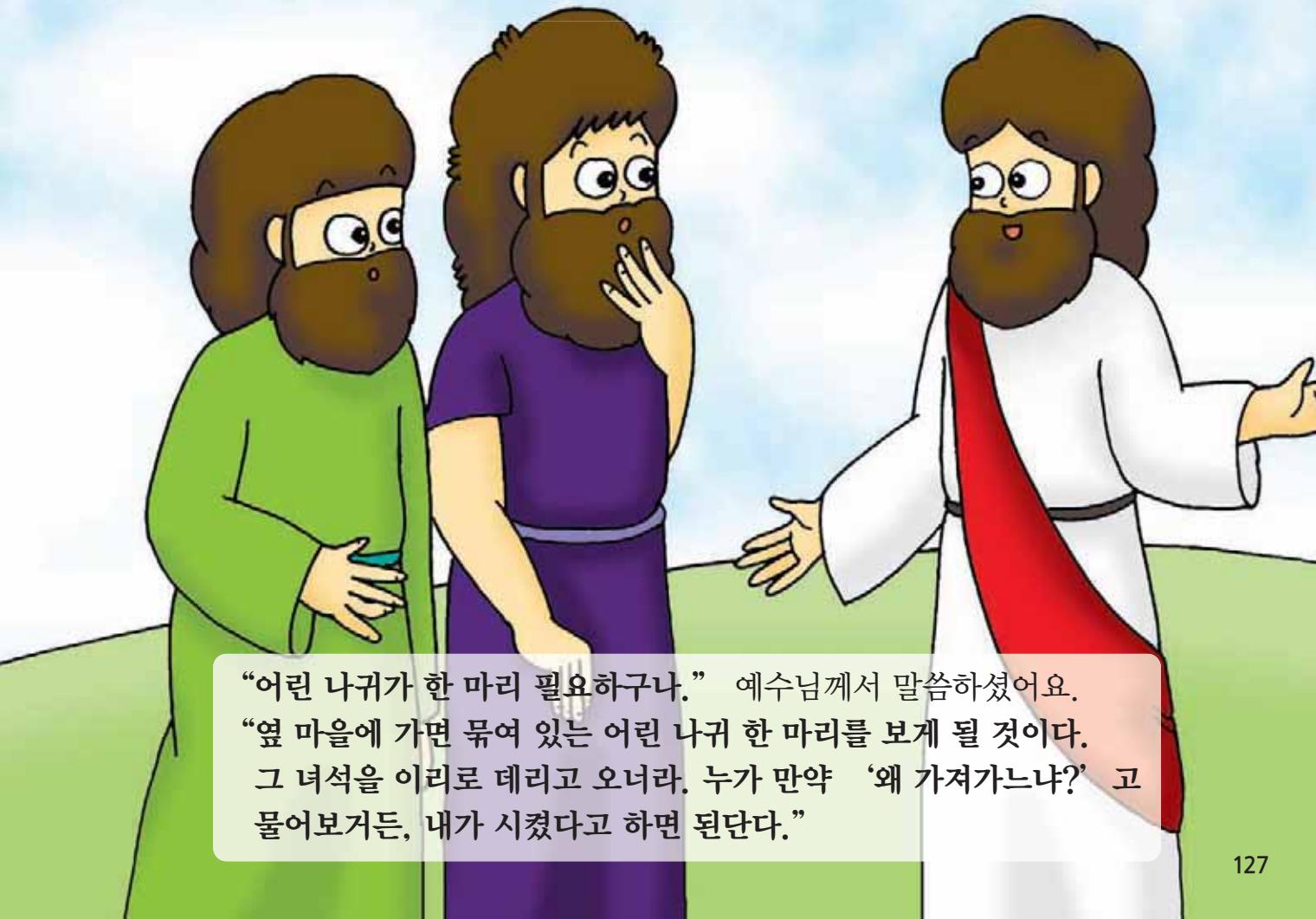
예수님이 삽개오를 보고
빙그레 웃으셨어요.

“삽개오야!
다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난 너를 용서했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삽개오는 행복했어요.
새로운 친구가 생겼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제일 좋은 친구시잖아요.

20. 어린 나귀를 하신 예수 님

마가복음 11장



“어린 나귀가 한 마리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옆 마을에 가면 묶여 있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녀석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누가 만약 ‘왜 가져가느냐?’고 물어보거든, 내가 시켰다고 하면 된단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옆 마을에 가봤어요. 정말 그렇게 끓여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큰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갈 거예요.
지금은 큰 명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귀 주인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주셨으면 합니다.”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를 드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자기의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큰 성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갔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 위에 깔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왕을 맞이할 때 쓰는 나뭇가지를 펼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뒤로 따라가며 기뻐서 소리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닌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21. 마지막 저녁 식사

마태복음 26장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디에서 명절 식사를 준비해야 할까요?”

“성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에게 부탁하여라.”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한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집으로 갔어요. 함께 저녁 식사 준비를 했어요.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자, 예수님과 열 두 명의 제자들은 같이 저녁식사를 먹었어요.

“내가 너희들 곁에 없어도 서로 사랑하여라. 알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빵을 먹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잘라서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빵은 내 몸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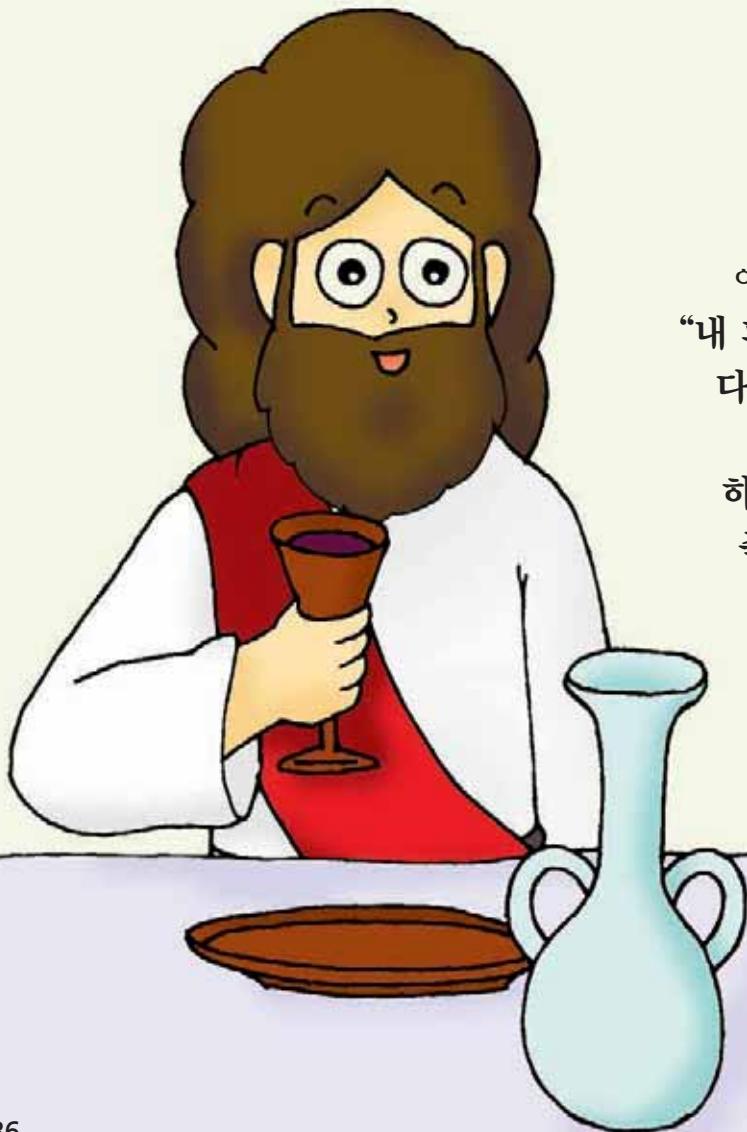
이 빵을 서로 나누어 먹듯이 내 몸도 너희를 위해 찢어질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왜 이런 말을 하실까 걱정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빵을 먹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슬펐어요.
제자들은 꼭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만 같았어요.





“이 잔을 마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던 너희를 위해
다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죽게 된 너희를 대신해서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 잔을 받아서 다 마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를 원하지 않았답니다.

“너희는 앞으로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나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린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선 안 된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누군가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다윗이 만든 찬양을 부르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찬양의 시간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하셨기 때문이었죠.



22. 예수 님의 사랑

마태복음 27장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라!”

빌라도 총독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더 크게 소리쳐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구 때렸어요.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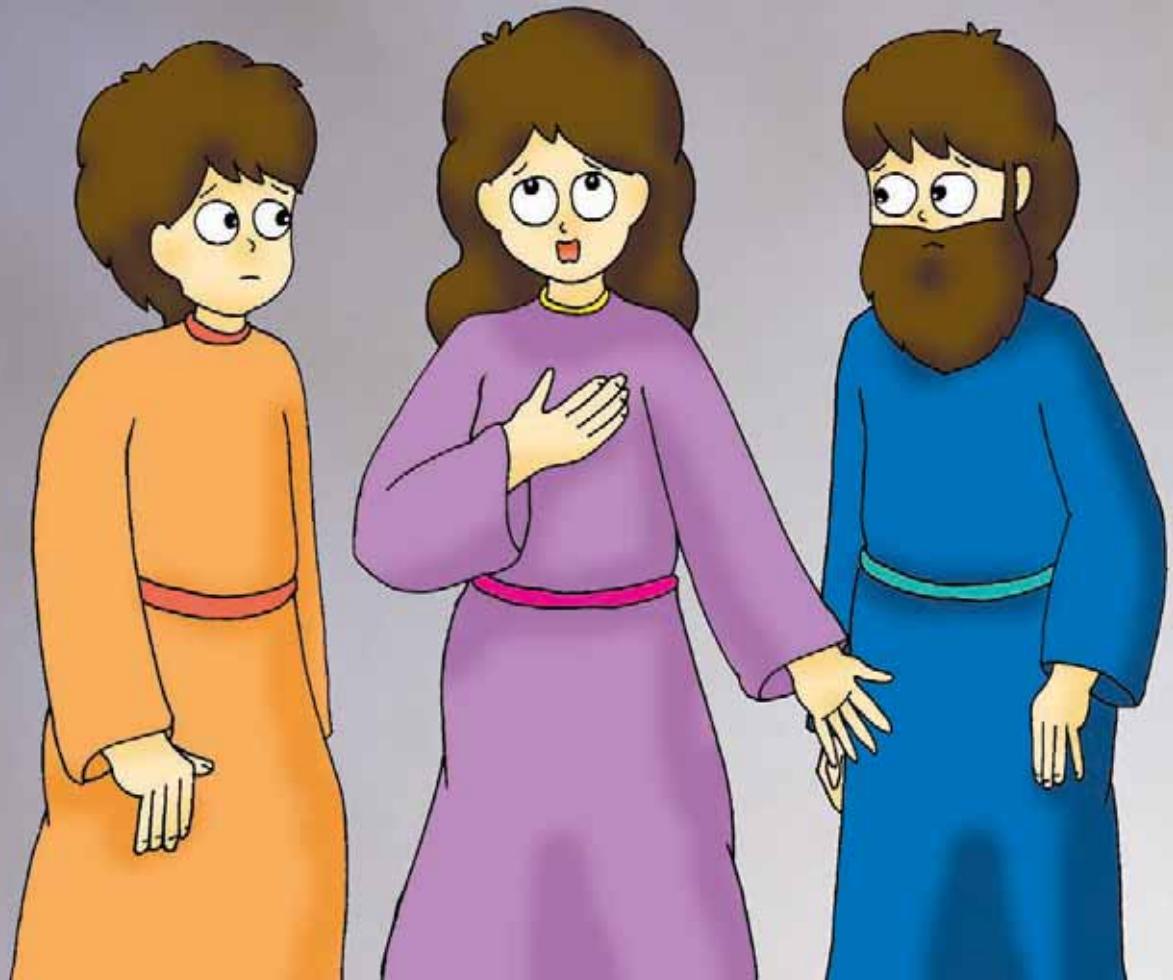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착한 일을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저를 해치는 이 사람들을 용서해주세요.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해님이 빛을 잃었어요.
세상이 밤처럼 깜깜해 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것보다 어떻게 더 크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23.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요한복음 20장

마리아는 너무나 슬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을 막아 놓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나 봐요.”
제자들이 달려가서 무덤 안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없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나 봐.”

마리아가 말했어요.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엉엉 울고 있었어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누군가 서 있었어요.

“왜 울고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나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어요.”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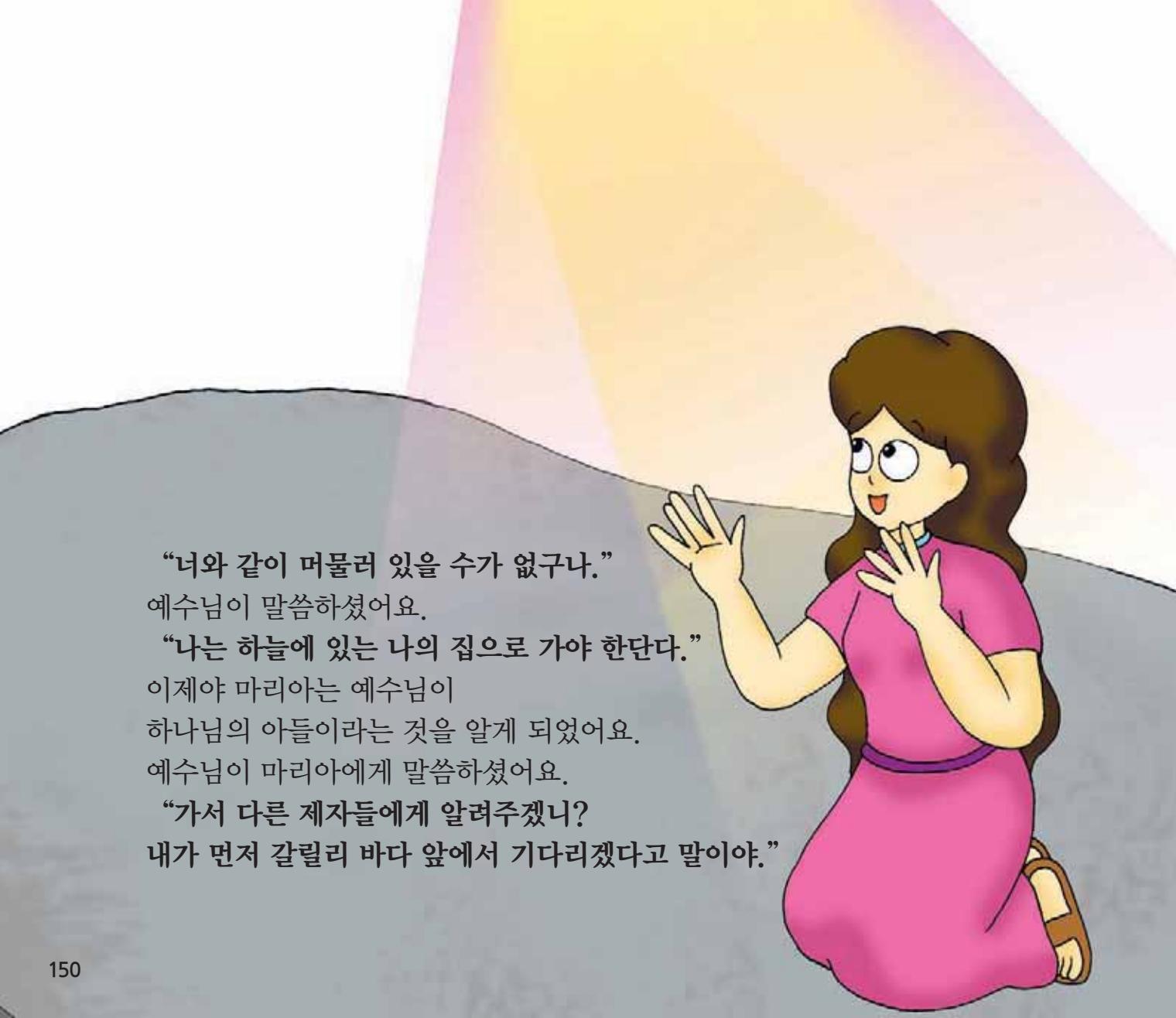
“마리아야!” 그 사람이 불렀어요.

마리아는 놀랐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마리아는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너와 같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 있는 나의 집으로 가야 한단다.”
이제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겠니?
내가 먼저 갈릴리 바다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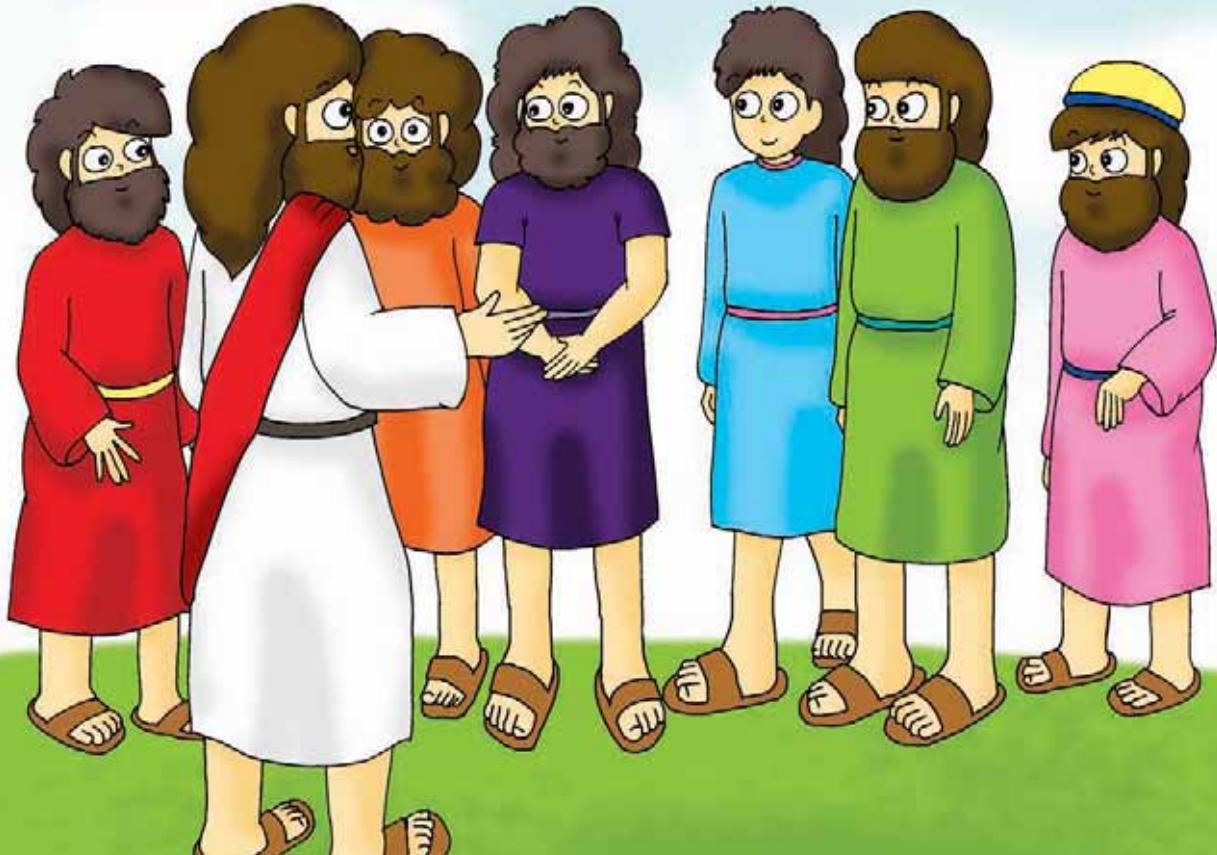
24.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사도행전 1~8장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앞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했던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곧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주었어요.
“여러분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거에요.
예수님의 부탁을 기억하여 지키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 가셨죠.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오직 한 분인 것을요.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갔어요.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용감하게 전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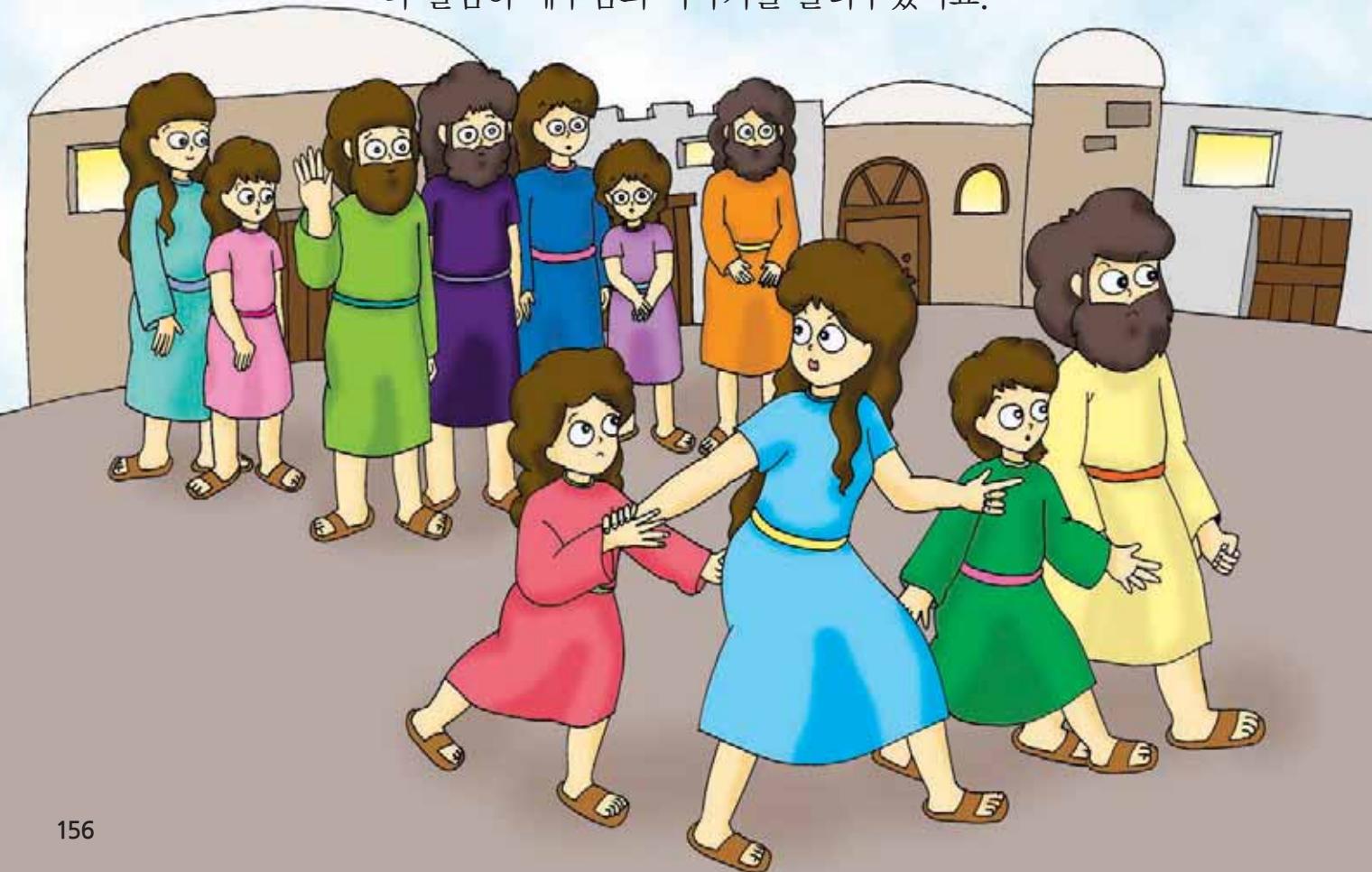


제자들이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했어요.
또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싫어하며 감옥에 가두려고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자 기뻐했어요.
더 열심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25. 빌립과 에데오 피아 사랑

사도행전 8장



“이 마을을 떠나서 가세요.”
한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어요.
“내가 가르쳐 주는 곳으로 가세요.”



빌립은 천사가 말해 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었는데, 넓고 넓은 들판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없는걸.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빌립이 말했어요.





그때, 빌립은 한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는데, 높은 관리였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빌립이 물었어요.

“아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이 좀 도와주실래요?”





“네, 제가 도와드리죠.”

빌립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드리라고
저를 여기에 보내셨는데요.”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가르쳐주었어요.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어요.”

에티오피아 관리가 빌립에게 말했어요.

빌립은 정말 기뻤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선을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에티오피아 관리는 먼 고향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답니다.



26.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

사도행전 9장



사울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싫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하나님인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따라야 해?’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괴롭히려고 난리였어요.



어느 날 사울은 다마스쿠스까지 갔어요. 그곳은 멀리 떨어진 도시였지만,
사울은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붙잡아서 끌고 오고 싶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지.’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마스쿠스로 가까이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서 비쳤어요.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어요.
사울은 땅에 엎드렸어요.





“사울아, 나를 괴롭히지 마라.”

누군가 사울에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누구신데요?” 사울이 물었어요.

사울은 무서웠어요.

지금까지 하늘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나는 네가 미워하는 예수란다.”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나를 따르거라.”

이제 사울은 예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도요.

사울은 살아있는 동안 늘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27. 감옥에서 노래한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는 세상 여러 곳을 다니며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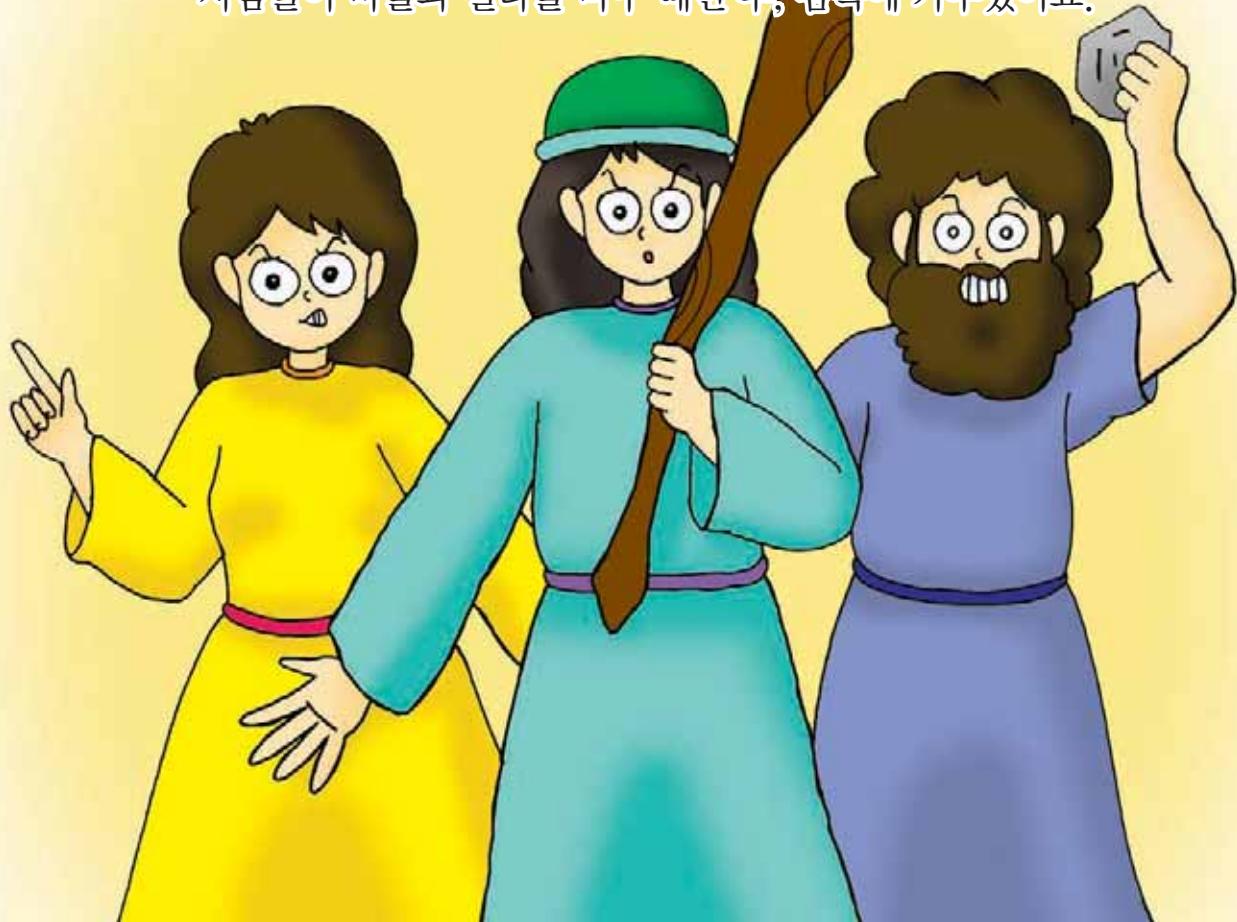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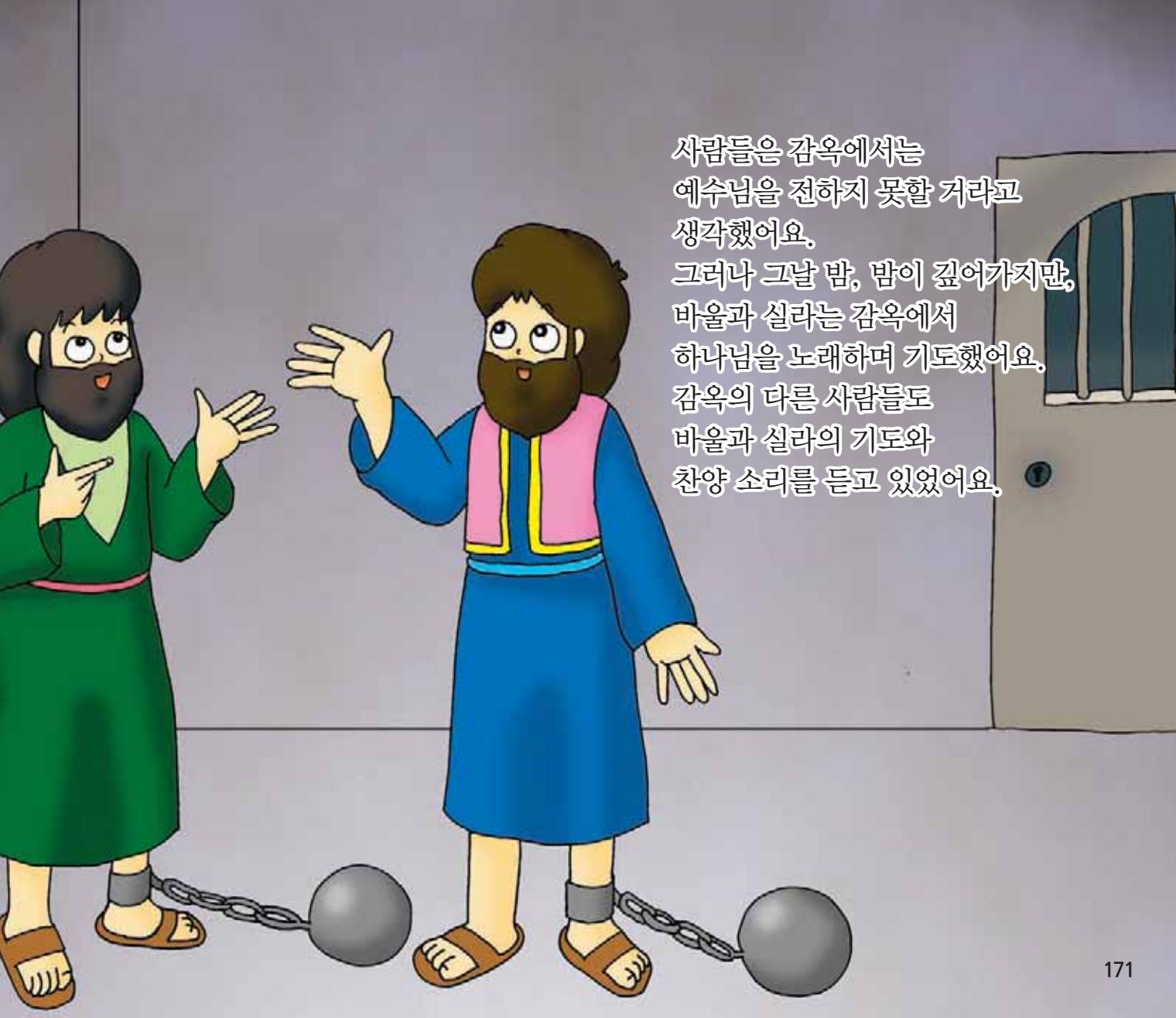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우리 마을을 시끄럽게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시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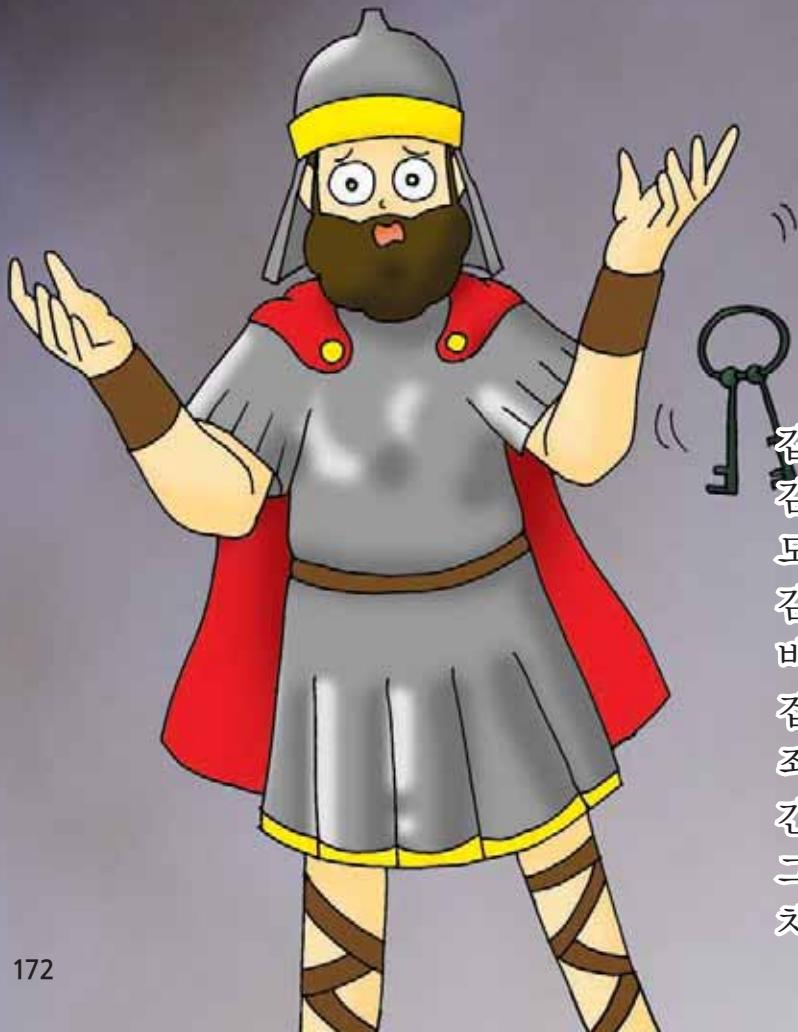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마구 때린 후, 감옥에 가두었어요.



A cartoon-style illustration of two men in a prison cell. On the left, a man with a beard and glasses, wearing a green robe, points his finger towards the center. On the right, another man with a beard, wearing a blue robe over a pink vest, has his hands raised in a gesture of defense or explanation. They are standing on a floor with large metal balls attached to their ankles by chains. In the background, there's a grey wall and a door on the right side.

사람들은 감옥에서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날 밤, 밤이 깊어가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도했어요.
감옥의 다른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감옥의 문이 부서져서
모두 열려버렸어요.
감독을 지키던 간수는 겁이 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 버렸을까 봐
겁이 났어요.
죄수가 없어지면,
간수는 큰 벌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간수는
차라리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만!” 바울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이제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간수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보살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도 예수님께 용서를 빌고 싶어요.” 간수가 말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간수와 간수의 가족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로 했어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 주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간수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정말 기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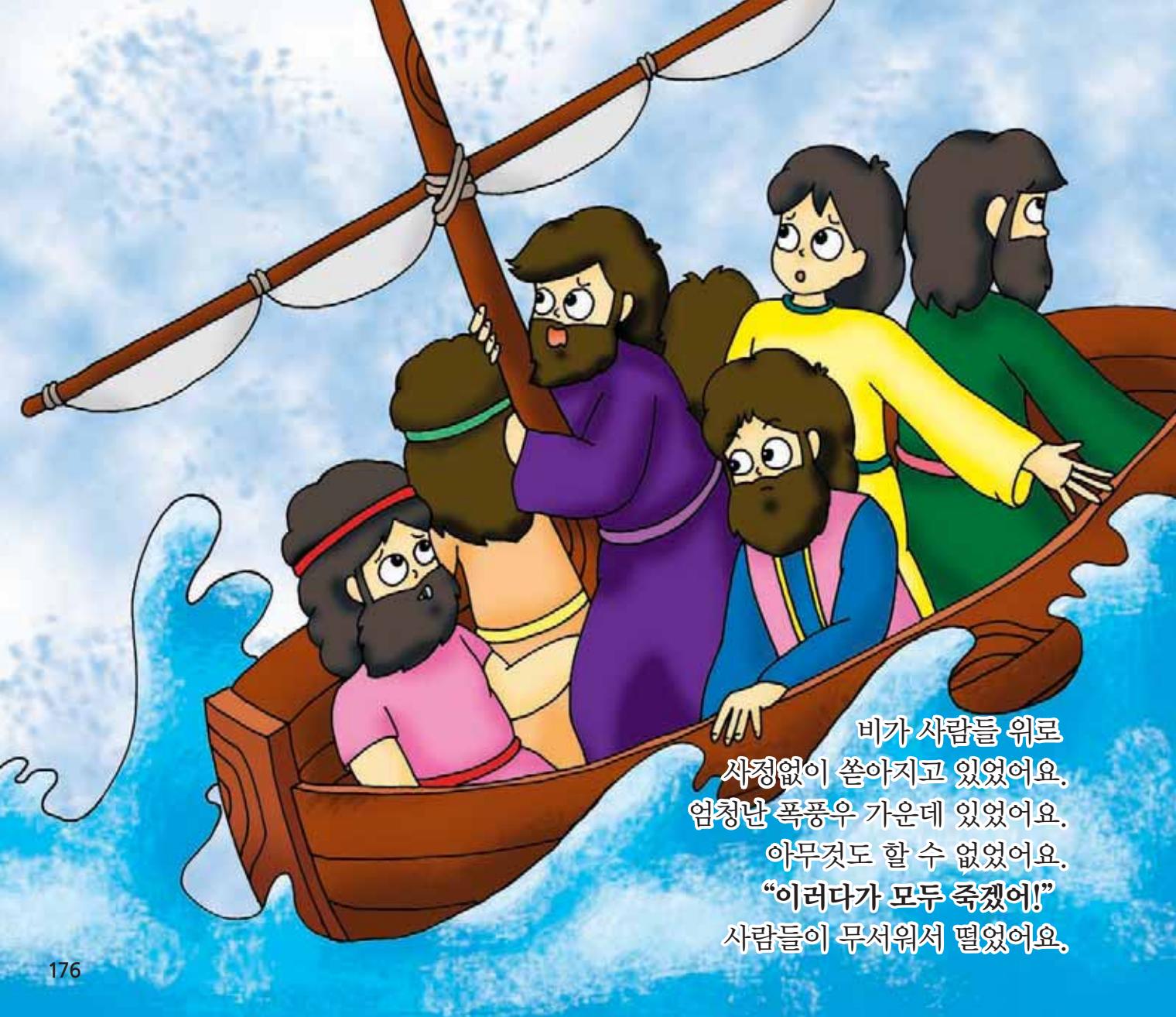


28. 용감한 도우미, 바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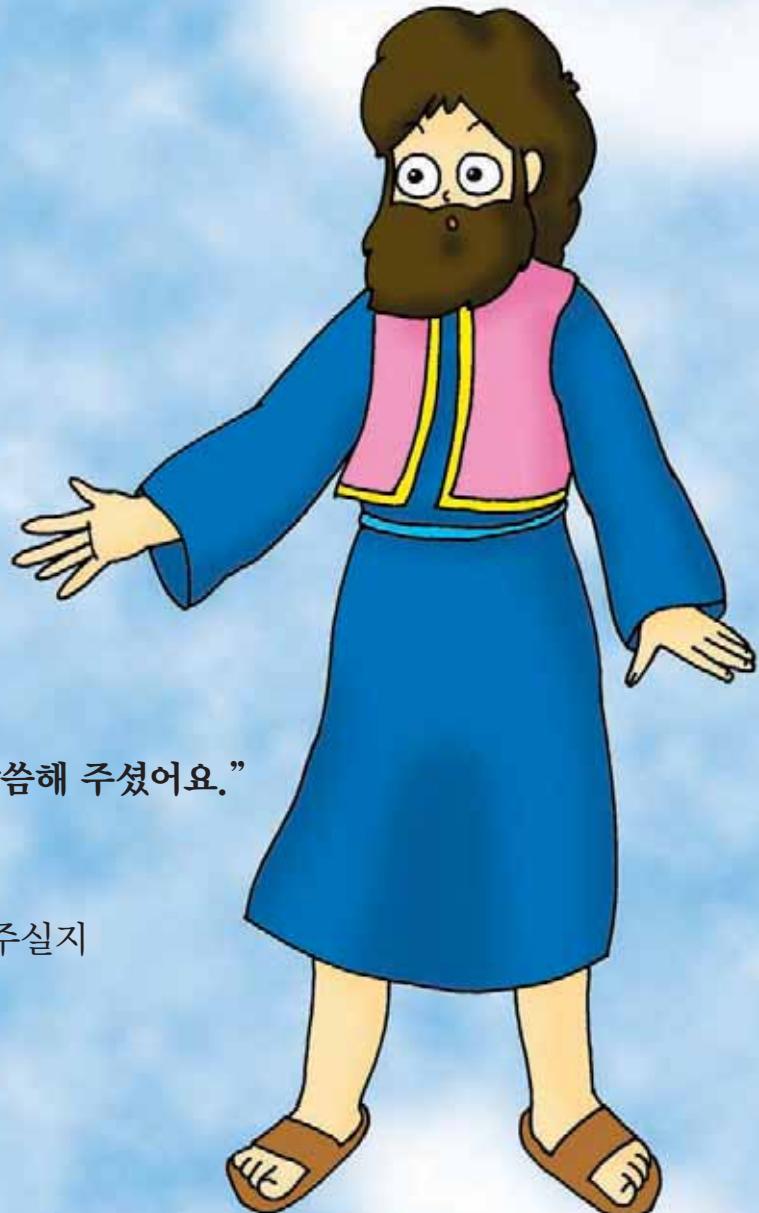
사도행전 27장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찔찔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사납게 불어와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히려고 해요.



비가 사람들을 위로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폭풍우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러다가 모두 죽겠어!”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었어요.



“아니에요. 우린 죽지 않아요.”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와주실지
이야기해주었어요.

바울은 용감하게 전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폭풍우가 더 심해져서 배가 바다에 가라앉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까지 배처럼 빠지게 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뻤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요.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용감하게 어려움을 이겨냈으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울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기뻤어요.



29.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

빌레몬서



오네시모는 도망쳤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위해서
일했었지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에게서 도망쳤어요.

오네시모는 지금 큰 도시로 도망치는 중이에요.
자기에게 힘들게 일을 시키는 빌레몬의 물건들도 갖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셔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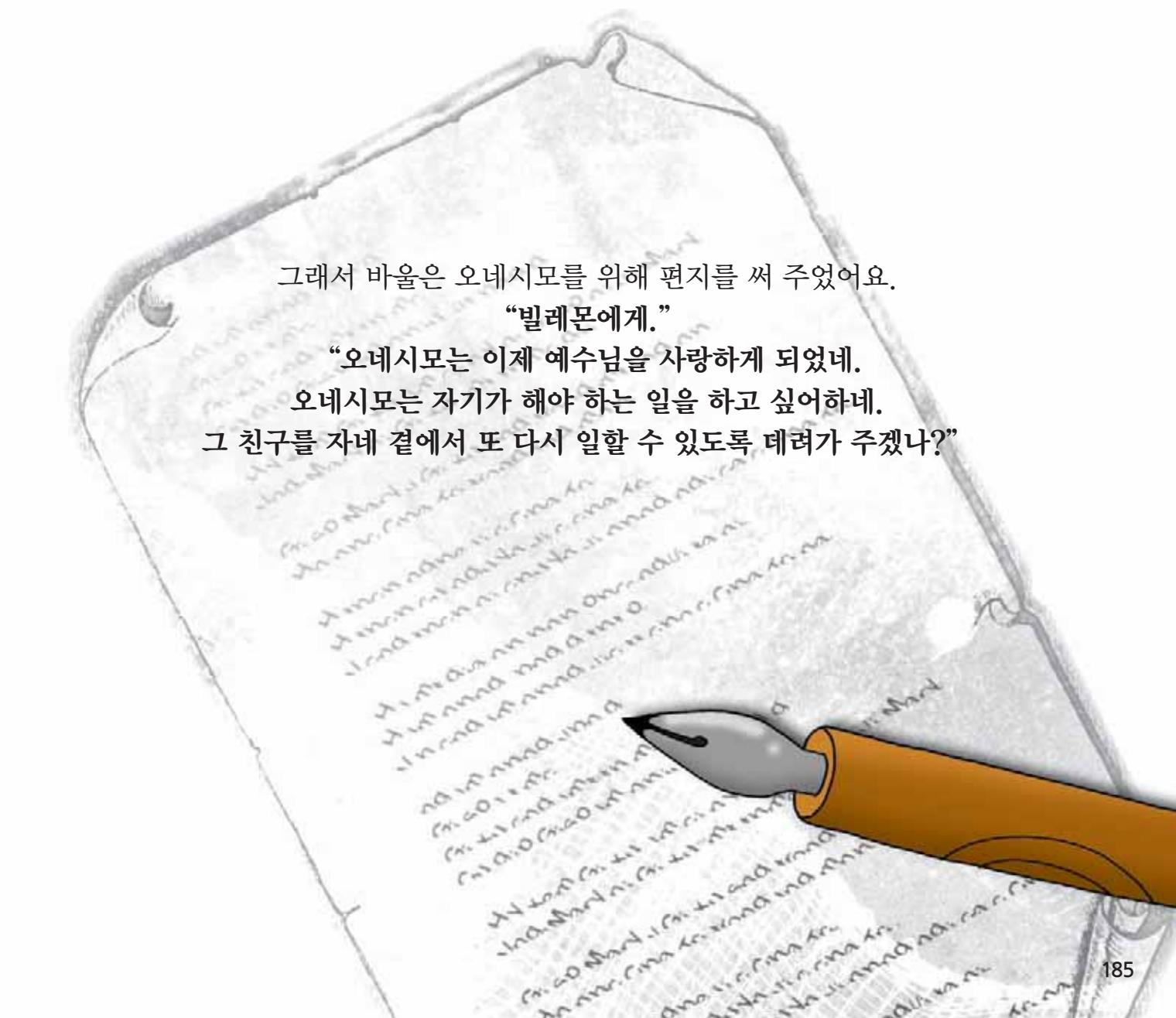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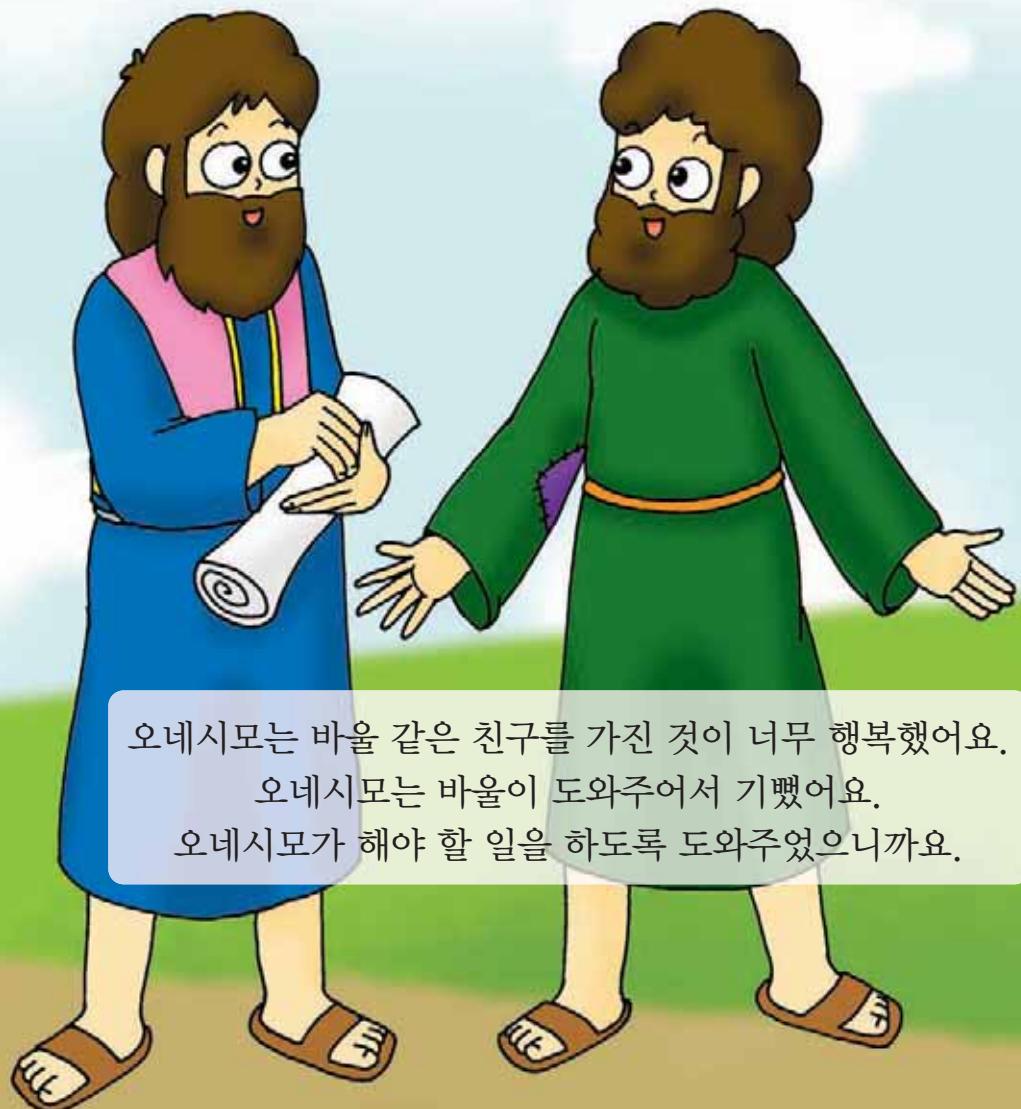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다시 자기를
데려가기를 바라게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자기를 사랑해 주고
괴롭히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편지를 써 주었어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네.
오네시모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네.
그 친구를 자네 곁에서 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데려가 주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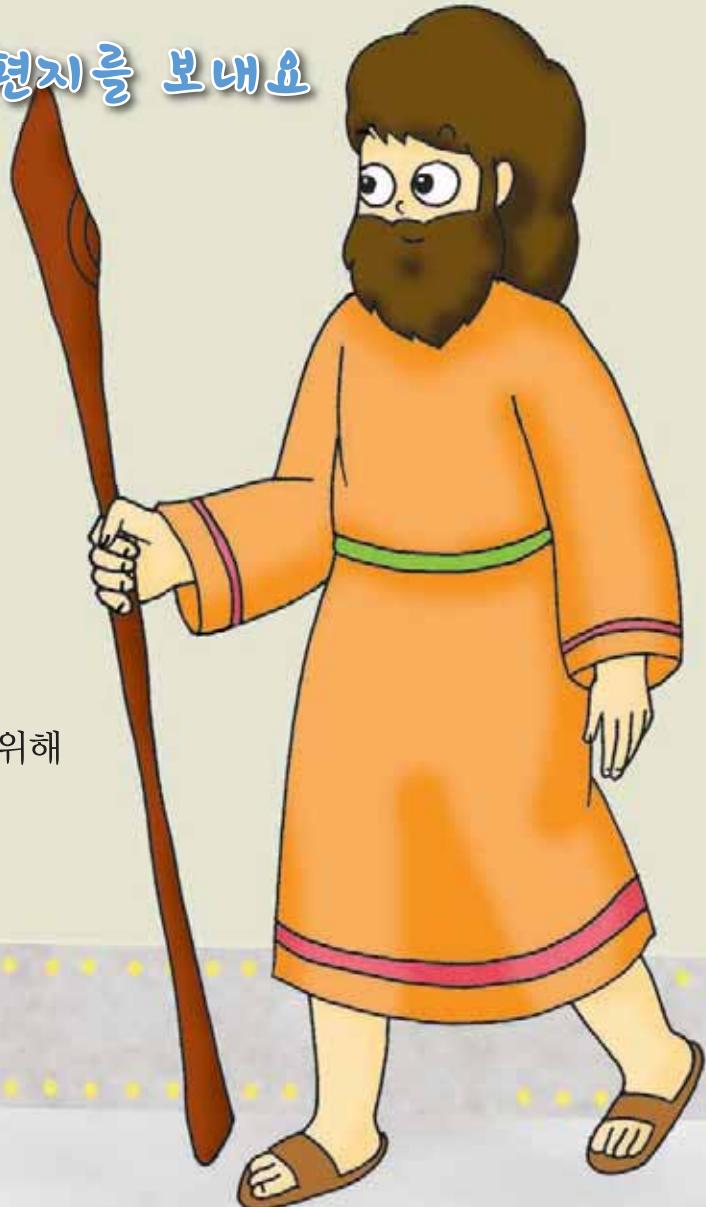
오네시모는 바울 같은 친구를 가진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오네시모는 바울이 도와주어서 기뻤어요.

오네시모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도와주었으니까요.

30.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빌립보서, 히브리서



어느 날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돋기 위해
에바브로디도가 온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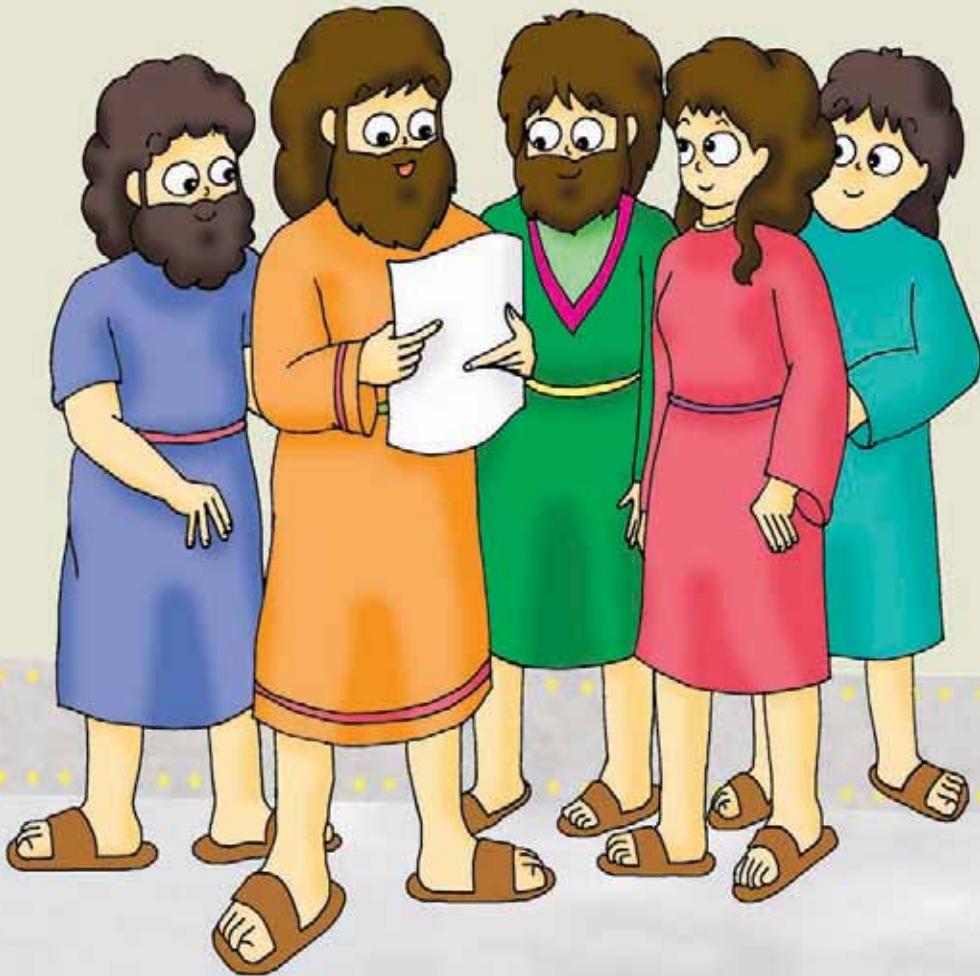
“끙! 풍!”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교회를 열심히 돋다가 그만 병이 났어요.

바울도 많이 걱정했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친구들 모두는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봐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의 편지를 전해 주었어요.
빌립보에 사는 교회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전해 주었어요.
편지에는 빌립보 친구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A cartoon illustration of Jesus Christ with brown hair and a beard, wearing a pink vest over a blue tunic. He is sitting at a desk, writing on a long, white scroll with a quill pen. A black inkwell sits on the desk next to the scroll. The background is plain.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썼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에게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편지를 썼어요.

31. 예수님을 멀리멀리 전해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바울은 세상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편지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또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세상의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삼 일만에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를
자랑하고 전했어요.
또한 틈틈이 교회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느 날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디모데에게 편지했어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좋은 목사님이 되라고 편지했어요.
디모데 뿐만 아니라 디도에게도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라고 편지했어요.

32. 예수님이 전한 베드로의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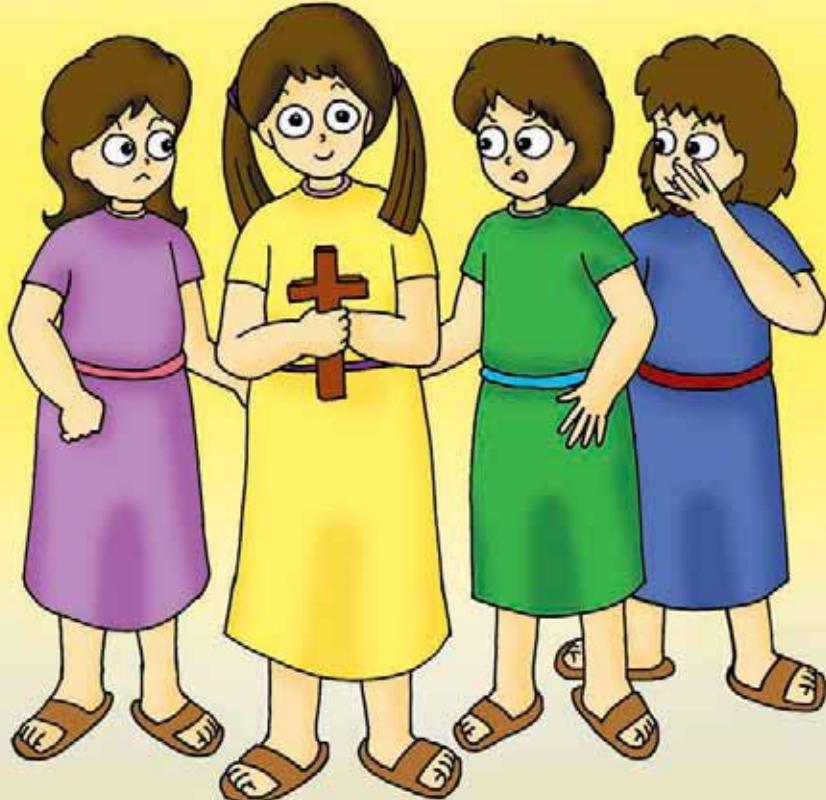
베드로전.후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두 개의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편지는, 소아시아 근처에 흘어져 사는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괴롭혀도 씩씩하라고 썼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친구들을 더 사랑하라고 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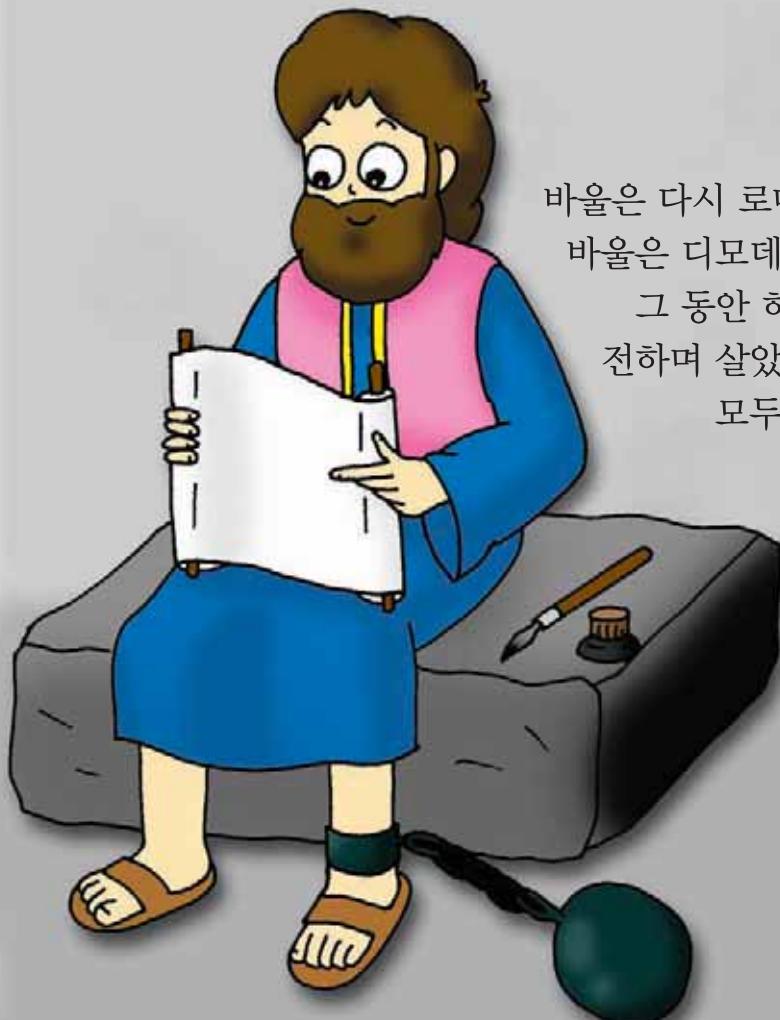


두 번째 편지는 교회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썼어요.
거짓말로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속지 말라고 썼어요.



33.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바울은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간혔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자기의 마음을
모두 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라고 썼어요.

또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길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어요.

34. 요한이 쓴 사랑의 편지

요한 일.이.삼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요한도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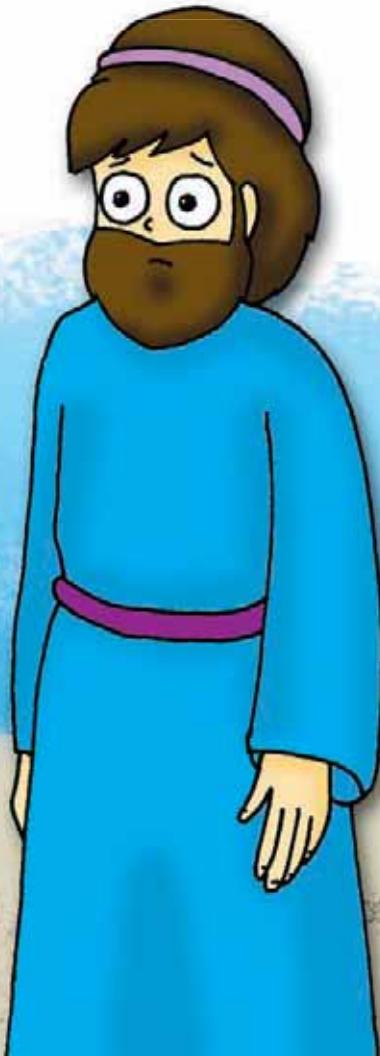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과 친구들을 많이 사랑하라고 썼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라고 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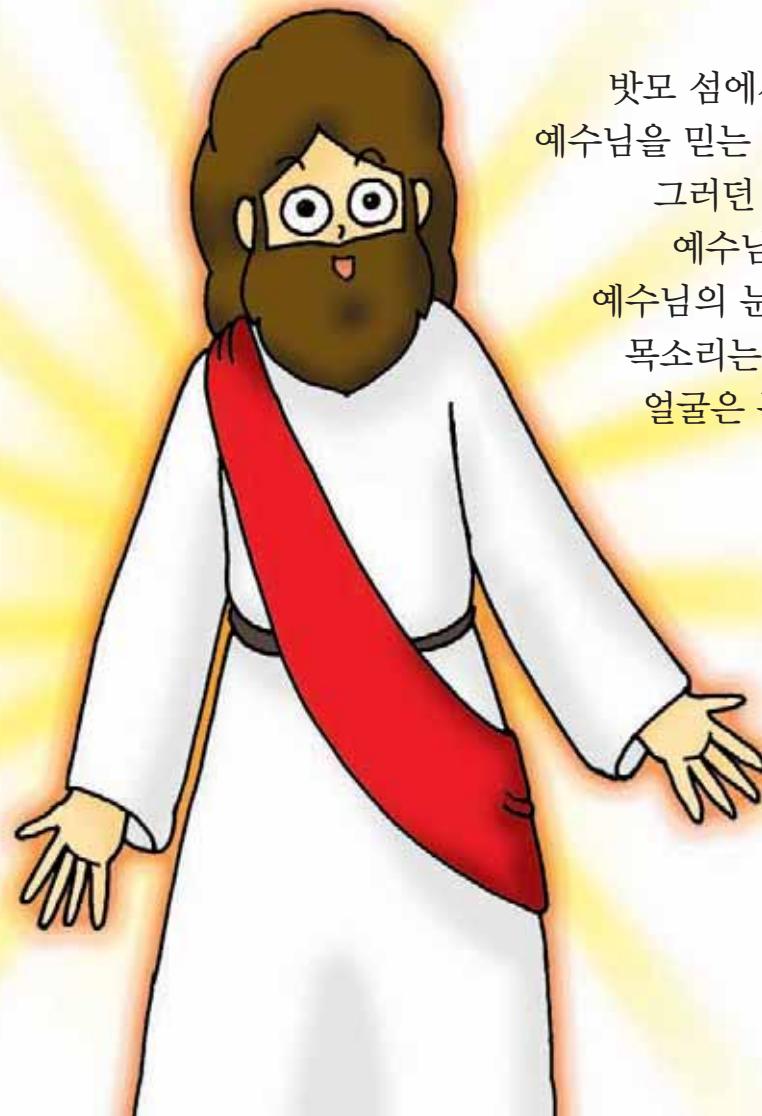


35. 뱃모섬에 있던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계시록

요한은 붙잡혀서
밧모라는 섬으로 끌려갔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옥을 대신해서
밧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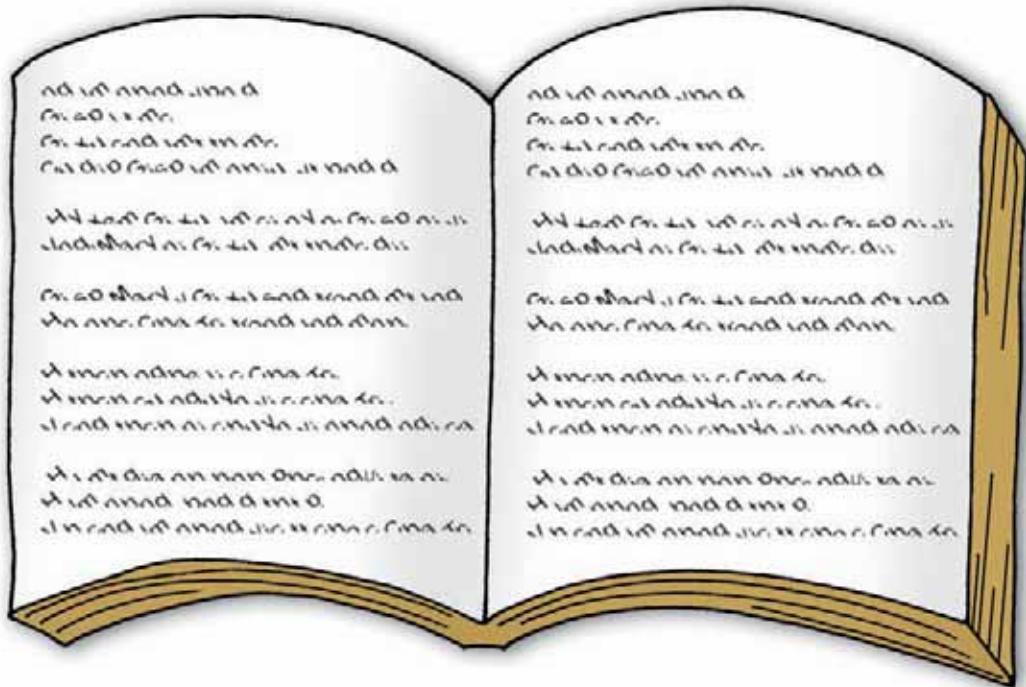
밧모 섬에서도 요한은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처럼 빛났어요.
목소리는 흐르는 물 같았어요.
얼굴은 눈부신 해 같았어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사랑하도록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님이시라고
편지에 썼어요.



36. 요한이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밧모 섬에서 요한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께서 무지개 빛으로 둘러싸인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 적혀 있는 책을 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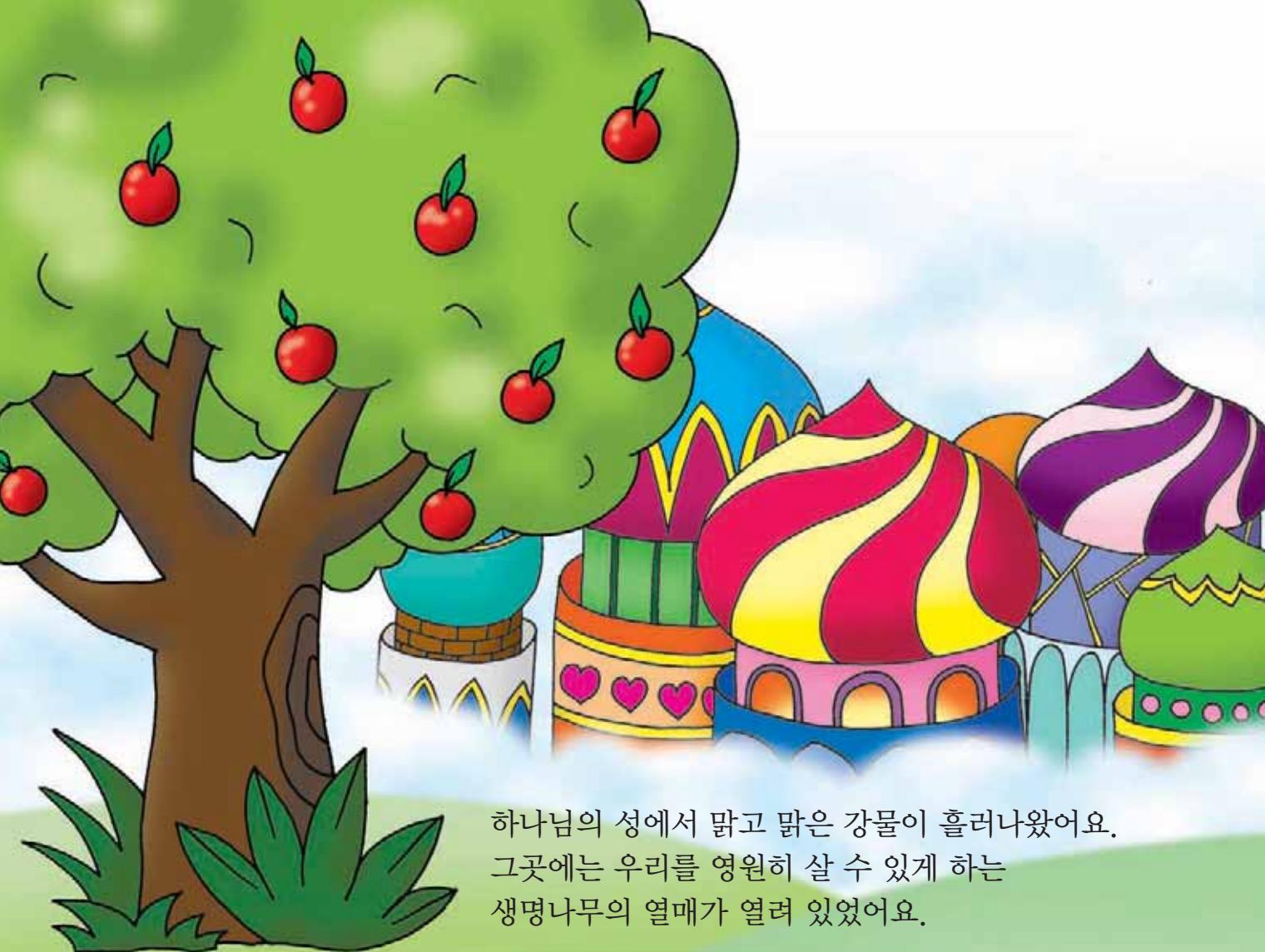
예수님이 펼쳐주신 책을 보고 요한은 그것을 모두 글로 적었어요.

요한은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궁전도 보았어요.

예수님의 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아름다운 하늘 나라의 궁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에서 맑고 맑은 강물이 흘러나왔어요.
그곳에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려 있었어요.

요한이 본 것은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전에 갈릴리 바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요.
우리도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요.

